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에서  
제시한 이원론에 있어 이미지  
개념과 실재적 운동의 역할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임지환

## 국문초록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의 7판 서문에서 자신의 입장이 이원론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런 선언은 이원론의 문제를 해결 혹은 해소하겠다는 의도 또한 함축한다. 이런 시도는 이미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물질과 기억의 네 개의 장은 각각 이미지를 주어로 하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저작의 핵심은 이미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원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베르그손은 이미지 개념을 제안하고 그 개념이 기존의 실재론과 관념론에서 각각 도입하는 사물, 관념과 다른 것임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의 소통 불가능한 속성 사이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연장성을 사유실체에, 비연장성을 연장실체에 부여하고자 하며 그런 시도를 위해 운동성이라는 것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즉, 기존의 운동론에서 등질적 공간상의 운동과 그와 철저히 구분되는 감각적 성질들이 ‘우주적 변형’(la transformation universelle)으로서의 운동에서 기원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운동을 베르그손이 어떻게 재해석함으로써 이원론 문제 해소의 기초를 놓는지, 물질과 기억의 중심적 개념인 이미지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맥락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살펴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 개념을 베르그손이 명시적으로 제안한 방향을 따라 기존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비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볼 것이다. 그 후, 베르그손이 실재적 운동이라는 용어로 제시한 운동론의 개요를 해설하고 그것이 이미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원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부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베르그손이 이원론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운동과 정지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인가라는 유서 깊은 존재론적 문제에 대해 운동으로 정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특정한 입장을 전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런 입장의 귀결은 지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여들은 실재적 운동의 견지에서 볼 때 베르그손이 또 다른 이미지로 설정하는 신체 이미지들의 행동의 필요에 따라 다른 이미지들이 선택, 한정, 고정됨으로써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 주장을 따른다면 지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

는,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며, 색과 형태 같은 고정적 형태를 지닌 개별적 물체들은 그 부동성 배후에 결코 정지하지 않는 운동을 근거로 갖고 있으며, 부동성과 고정성 같은 정지는 운동의 효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논문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실재적 운동의 이런 효과를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여러 현대적 기술의 실례와, 우리 신체의 일상적 지각의 리듬과 다른 리듬을 체험할 때 신체의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입증하고, 이런 실재적 운동의 절대적 속성이 어떻게 기존의 이원론이 부딪히는 난점을 해소하는지 드러낼 것이다.

주요어: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이원론, 이미지, 실재적 운동, 연장, 확장, 신체 이미지, 이미지의 선택,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

학번: 2012-22891

## 목차

1. 서론 .....	1
2. 이미지 .....	7
2-1 이미지의 도입 .....	8
2-2 신체 이미지와 신경계 .....	11
2-3 이미지와 의식적 지각 .....	13
3. 이미지 개념에 대한 내재적 평가 .....	16
3-1 이미지 개념과 외부사물의 실재성 문제 .....	16
3-2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과학적 범칙에 종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	17
3-3 이미지만을 함수로 놓고 표상적 의식을 설명하는데에 따르는 난점 .....	18
3-4 이미지론을 전개시키는 방법의 문제 .....	25
4. 이원론 문제의 정식화와 실재적 운동 .....	28
4-1 운동의 불가분성 .....	31
4-2 실재적 운동 .....	34
4-3 실재적 운동의 견지에서 본 대상적 분할의 인위성 .....	39
4-4 실재적 운동 - “우주적 변형”으로서의 운동 .....	43
4-5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 .....	47
4-6 실재적 운동과 이원론 문제의 해소 .....	52
4-7 운동의 우선성에 대한 의문 .....	55
4-8 실재적 운동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의 한정과 고정 .....	59
4-9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적 연장으로서의 “확장(Extension)” 개념 .....	62
4-10 이미지 개념의 근거로서 실재적 운동 .....	64
5. 결론 .....	69

참고문헌 .....	73
Abstract .....	75

# 1.서론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 7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 책의 기획의도를 명료하게 밝힌다. “이 책은 정신과 물질의 실재성을 확인하며 기억이라는 정밀한 예증으로 그 둘의 관계를 결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명백히 이원론이다.”<sup>1)</sup> 즉, 심신관계를 이원론의 입장에서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원론이 가진 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베르그손의 이 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표적으로 심신 관계의 문제에서 이원론을 주장한 데카르트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가지 실체를 설정하여 이원론이 따르게 될 개념적 틀을 창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원론에게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문제도 동시에 생겨났다. 이 두 실체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미 두 실체를 서로 배타적인 속성인 연장과 비연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두 실체를 접근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원론을 표방하는 베르그손이 이런 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론을 표방하는, 『물질과 기억』의 첫 문장 다음 구절이 그가 이 난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예고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신체와 정신을 이원론이 항상 지닐 수밖에 없는 이론적 난점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한다.”<sup>2)</sup>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이원론의 두 항을 서로 구분하면서도 양자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베르그손은 신체와 정신을 연장성으로 구분되는 두 실체로 설정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 대안으로 이미지 개념을 도입하여 정신과 물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길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장성으로는 도저히 그 상호작용이 설명될 수 없는 두 항이 일치될 수 있는 여지를 이미지 개념과 실재적 운동 비판을 통해 확보

1)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21 (번역수정)

2) 같은 쪽

하러 시도한다.

어떤 면에서 『물질과 기억』은 책 전체가 이미지 개념<sup>3)</sup>의 상술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의 전체 4장 각각의 부제는 이미지가 주어로 되어 있으며 이 이미지 개념의 도입으로 당대 인식론의 학설들과 심리학적 가설들이 암암리에 전제하는 형이상학적 가설들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진다. 그 뿐 아니라 이미지로 정의되는 지각, 기억의 개념을 통해 물질과 정신이 재정의 되며 이런 재정의 된 물질과 정신을 여러 실증적 사례를 통해 정당화 한 후, 운동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를 통해 두 항이 일치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즉, 이미지 개념 없이는 이상의 모든 작업이 불가능하다. 일단 각 장의 부제가 1장, “표상을 위한 이미지들의 선택”, 2장 “이미지들의 식별”, 3장 “이미지들의 존속”, 4장 “이미지들의 한정과 고정”으로, 기억과 정신은 이미지의 존속으로, 지각과 물질, 영혼과 신체는 이미지의 한정과 고정으로 설명될 것임을 차례를 보아도 이미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더욱 강조해주는 것이 7판 서문이다. 이미지 개념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자 실재론과 관념론 양자 모두와 다른 자신의 인식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이미지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자 했던 것을 보면 『물질과 기억』의 독해에 있어 가장 중심적 개념이 이미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 개념이 이 저작의 중심적 개념인 만큼 이미지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베르그손 철학이 실증적인 방식으로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만큼<sup>4)</sup> 기억과 지각의 기능에 관한 형이상학적 주장을 실증과학과 당대의 심리학적 발견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을 전개시키고 있다. 『물질과 기억』에 그런 작업의 중추를 형성할 개념이 먼저 명확하게 제시되

3) '이미지'라는 용어가 베르그손 이전의 철학사에 쓰인 전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308~p.314.

4) 이러한 베르그손 철학의 실증적 성격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p.25~35.



지 않는다면 베르그손의 다른 주저 『창조적 진화』를 읽고 르네 베르틀로(Berthlot)가 했던 “이 책은 물리학적 소설이다”<sup>5)6)7)</sup>라는 표현을 빌려 『물질과 기억』에 대해 심리학적 소설이라 평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sup>8)</sup> 베르그손이 실증적 형이상학을 표방하는 만큼 『물질과 기억』에 있어서도 그런 기조는 관철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이미지 개념은 분명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 개념은 먼저 인식론적 차원에서 도입된다. 그러나 점차 실재론과 관념론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 함의를 드러내며 물질과 정신을 비연장적 속성을 통해 재정의 하는데 이르게 된다. 거기서 심신 이원론의 난점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게 되고 일치의 가능성 또한 제시하게 된다. 『물질과 기억』의 전체적인 논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미지 개념만으로는 이런 전개가 불가능하다. 이미지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의 두 인식론적 입장인 실재론과 관념론을 뛰어넘기 위해 인식은 사변적 목적이 아닌 실천의 목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관점이 개입되며 그 결과로 기억의 기능 또한 도입된다. 이미지

5) 앙리 베르그손, 황수영(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p.550.

6) 베르틀로의 이런 평가는 유려한 문체로 참여한 철학적 쟁점을 에두르며 신비주의적인 메타포로 비약한다는 베르그손 비판자들의 비판과 궤를 같이한다. 신비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명을 참조할 수 있다.

황수영, 『베르그손-지속과 생명의 형이상학』, (이룸, 2003), p.21~23.

7) 분명 『창조적 진화』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는 각각의 책만 따로 놓고 볼 때, 어떤 독자에게든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창조적 진화』에서 생의 약동과 물질 사이의 일치에 대한 구절이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영혼의 사후존속에 대한 논의와 생의 약동에서 창조자로서 신을 제시하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베르그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여러 저술 사이에서 자신이 이전 저서에서 실증되든, 적어도 개연성이 있는 가설로서 입증한 근거 위에서 제시될 또한 엄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의 약동과 물질의 일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메타포가 아닌 엄밀한 설명을 읽어내는 사례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Milič Čapek, *Bergson and Modern Physics*, Dordrecht: D.Reidel publishing company, 1971, p.218~222.

8) 심리학적 소설이 아니기 위해서 평가할 점은 두 가지다. 실증적 사례와 별개로 이미지와 신체를 통해 기존 실재론과 관념론 양자의 난점을 완화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인식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 인식론의 문제설정이 갖는 권위를 빌려 소설이 아님을 보일 수 있다. 둘째로 서문에서 베르그손 본인이 제시하는 대로 심신 이원론의 난점을 완화할 수 있는가. 지각과 기억을 이미지만의 함수로 설정하고 인간 정신 현상의 실례들을 설명하며 실증적 입증이 가능한가 여부를 보인다면 이 또한 소설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의 도입과 그를 통한 시각의 해명에서 이원론의 한 가지 항인 물질이 새롭게 정의되고 그것이 기억과 관련되는 기능으로 제시되는 1장을 지나 2장과 3장에서 기억은 그의 고유한 방법인 직관<sup>9)10)</sup>을 통해 지속과 동일한 외연을 지니는 것으로 해명되며 이 과정에서 정신은 물질과 구분되는 항으로서 드러난다. 이렇게 두 항이 이원론적 입장에서 뚜렷하게 구별된 후 4장에서 둘의 일치가능성이 실재적 운동 비판을 거쳐 제시된다.

즉, 베르그손은 기존 이원론의 문제를 “제거하지는 못해도 완화할 수 있는” 이원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미지를 통해 정신과 물질을 새롭게 정의할 뿐 아니라 기존의 이원론이 운동에 대해 간과한 측면을 드러내고 고정되고 한정된 물체가 아닌 실재적 운동을 통해 우주를 해석함으로써 물질이 본질적으로 갖는 속성으로서 여겨지는 연장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미지의 한정과 고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4장은 이원론이 갖는 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시각의 전환을 담고 있다. 그 시각의 전환은 베르그손이 직접 각각 제시한 후 입증하고 부연하는 다음의 네 명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Ⅰ. 모든 운동은 정지에서 정지로 가는 과정인 한 절대적으로 불가분적이다.”<sup>11)</sup>

“Ⅱ. 실재적 운동들이 있다(*les mouvements réels*)”<sup>12)</sup>

“Ⅲ. 물질을 절대적으로 결정된 윤곽을 갖는 독립적인 대상으로 분할하는 것은 모두 인위적 분할이다.”<sup>13)</sup>

9) 직관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그에 대한 혼란 오해와 해명은 다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순현, 「‘유동적 개념’(le concept fluide)에 대하여 - 베르그손 철학에 있어 방법으로서의 직관의 한 예」,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0집, (2003.5), p.73~p.74.

10) Meyer는 직관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한다. “베르그손의 사유에서 직관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직관은 지속의 절대적 인식으로부터, 정신 자신의 직접적인 인식으로부터, 상징적이고 기계적인 인식보다 더 온전한 인식으로부터, 존재를(*l'existence*) 드러낸다.” 이 논문은 실재적 운동을 통해 이원론을 해소한다는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이런 직관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수용할 것이다. François Meyer, *Pour Connaitre Bergson*, Paris: Borda, 1985, p.80.

11)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p.314.

12) 같은 책, p.323.

13) 같은 책, p.329.

“IV. 실재적 운동은 한 사물의 이동이라기보다는 한 상태의 이동이다.”<sup>14)</sup>

기존의 이원론에서 정신과 물질의 본질적 속성이 각각 비연장과 연장으로 설정되어 생기는 난점을 완화하려면 어떻게든 연장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심으로 4장을 읽다보면 운동에 대한 위의 네 명제의 등장은 갑작스럽다. 물질과 그 본질적 속성인 연장을 운동을 통해 재해석한다는 4장의 논의는 언뜻 봤을 때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아 보인다.

베르그손의 그러한 서술은 연장을 실체가 아닌 이차적인 것으로 놓아 이원론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맥락 아래서 알맞게 이해될 수 있다. 즉, 베르그손은 물체가 연장성을 필연적으로 띠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우주를 운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물질에서 연장을 필연적인 속성이 아닌 것으로 떼어놓는 것과 동시에 관념에서 순수한 질, 비연장성이라는 속성을 떼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관념과 물질 사이에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던 연장과 비연장 사이에 비(非)를 통해 서로 만날 수 없었던 두 항은 접촉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 접촉의 장을 바로 베르그손의 운동 비판이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 비판이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이라는 소제목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은 이미지 개념 또한 이런 운동 비판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우주적 변형”으로서의 운동으로 새롭게 보이는 우주를 배경으로 성립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미지라는 개념이 “이미지의 선택”이라는 소제목 하에 처음 도입됨을 염두에 둘 때 결국 이미지의 선택은 한정과 고정과도 큰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자가 소통가능한 이원론을 제시하려는 베르그손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선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정되고 고정되기 위해

---

14)같은 책, p.338.

서 어떤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지, 이 길을 따를 때 연장은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 순차적으로 나아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먼저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베르그손이 그를 통해 실재론과 관념론, 유물론과 유심론을 비판하는 맥락은 배제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미지 개념은 그가 7판에서 특별히 그것을 설명하는 서문을 달아야 했을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큰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안하는 대로 인식론적 논의에 무지한 사람의 시각을 유지한 채로 그의 논의의 내재적 맥락에서도 의문이 없을지를 따져볼 것이다. 그 후, 그가 제시하는 운동에 대한 네 명제를 현대를 사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그 네 명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시각의 전환이 생기는지, 그 전환 아래서 이원론의 오랜 난제인 연장의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해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이미지

이미지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베르그손 본인의 다음과 같은 요청이다.

“만일 이 첫번째 장을 읽는 동안 우리의 이러저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독자의 정신 속에 반론들이 나타난다면, 이 반론들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요구한 두 관점들 중의 한편이나 또는 다른 편에 다시 위치함으로써 생겨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 보기 바란다.”<sup>15)</sup>

이 요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한 이미지 개념의 속성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베르그손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개념은 물질과 관념이다. 이미지 개념은 그의 표현대로 그 양자 사이에 있다. 이미지는 정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상을 지각하는 의식에 독립적이라는 면에서 관념과 다르다. 동시에 표상적 실재론의 주장과 다르게 물질이 드러내는 감각적 속성들이 물질 자체에 속한 것으로서 이미지가 제시된다. 이런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식론의 여러 논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 물질과 관념의 사이라고 설정되었으므로 물질을 놓고 가게 되는 탐구의 길과<sup>16)</sup> 관념을 놓고 가게 되는 길과도 다른,<sup>17)</sup> 다른 방식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은 삶의 조건에 관한 일반적 관찰로부터 설정된다. 이 삶의 조건이란 물론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아니다. 우주와 대면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존속하는 조건을 이 우주에 포함된

---

15)같은 책, p.23.

16)물질의 여러 근본적 성질을 찾아내고 그 성질에 따라 물리적 법칙을 찾아낸 후, 인간의 의식적 지각의 성립을 인간 신체의 특정한 기관, 즉 뇌의 표상 작용으로 설명하는 것

17)영국 경험론, 특히 버클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인상과 관념이 인식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그것들에 대해 형성되는 습관으로 지각의 공간성을 설명하는 것.

신체로 삼고 있는 인간 삶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관찰은 생물로서 생존하는 모든 존재의 조건 일반과도 그 외연이 겹칠 수 있다. 최초로 이미지가 제시되는 1장의 서술은 이미지를 개념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런 조건을 관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이미지를 도입하게 된 관찰은 실재론과 관념론의 난점들과 결부되어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가 제안하는 이미지를 통해 인식론의 문제들을 파악해야 하는가를 드러낸다.

이런 구성인 만큼 여기서는 이미지 개념을 무엇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로서가 아닌, 이미지 개념을 최초로 베르그손 자신이 제안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만 제시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글 안에 등장하는 다른 이론들에 대한 반론은 가급적 제외하되, 그의 관찰과 제안이 얼마나 정당한지 평가할 때 그가 부탁하는 대로 실재론, 관념론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했기에 제시되는 반론인지 아닌지 견줘봐서 그렇지 않은 반론일 경우에만 의문점으로 포함시켜 다룰 것이다.

## 2-1 이미지의 도입

이런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도입된다.

“잠시 동안 우리가 물질에 관한 이론들과 정신에 관한 이론들에 관해, 외적 세계의 실재성이나 관념성에 관한 논의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막연한 의미에서의 이미지들, 즉 내가 나의 감각들을 열면 지각되고, 내가 그것들을 닫으면 지각되지 않는 이미지들 앞에 있게 된다.”<sup>18)</sup>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정의됨과 동시에 다른 이미지와 다른 특별한

---

18)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p.37.

이미지로서 신체가 등장한다.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이 신체라는 이미지의 특별함이 드러난다. 신체 이외의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베르그손은 서술한다. 그리고 법칙에 따름은 새로운 것이 없음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신체는 이런 변화 없는 이미지들의 체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신체라는 이미지의 특별한 성질로 다음이 제시된다. 일단 신체는 다른 이미지처럼 같은 이미지로서 내게 지각된다. 다른 물체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한된 시각이라 해도 우리는 자신의 손이나 다리와 같은 신체의 부분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미지와 달리 내적으로도 알려진다. 몸의 통증이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으로 신체는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이미지가 내게 속한 신체 이미지이며 그것이 다른 이미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우리는 의지를 통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지에 따른 움직임은 과학적 체계에 속한 다른 이미지들의 체계와는 달리, 완전히 예측될 수 없는 새로움을 전 체계에 가져온다.

이런 특별한, 신체라는 이미지와 그 특성에 따라 다음의 사실도 따라 나온다. 외적 세계의 이미지들은 서로가 결정된 방식으로 법칙에 따라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런 결정된 체계에서 신체가 어떤 새로움을 산출한다면 신체라는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신체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신체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 주위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양되는지 매순간 파악한다. 신체가 행동한다는 것, 그 행동에 따라 주위의 이미지가 변양된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신체는 다른 이미지들이 서로 결정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과 달리 특권적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의 변양은 신체 이미지가 지닌 행동의 능력에 따라 정돈된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은 그것들에 대한 내 신체의 가능적 행동을 반영한다.”<sup>19)</sup> 이런 사실에서 신체는 다른 이미지

와 달리 다른 이미지들의 영향으로부터 결정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대상을 움직이는 목적으로 하는 대상인 나의 신체는 따라서 행동의 중심이다.”<sup>20)</sup> 이와 같이 이미지가 정의 된 후, 신체라는 특별한 이미지가 구분되며 그 이미지의 행동이라는 특성에 따라 다른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양되는지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해진다. “나는 이미지들의 전체를 물질이라고 부르고, 나의 신체라는 어떤 결정된 이미지의 가능적 행동에 관련된 이 같은 이미지들을 물질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른다.”<sup>21)</sup>

이와 같이 베르그손은 물질과 지각을 이미지 개념을 통해 재정의한다. 이런 재정의는 그가 탐구의 시작에서 요청하는 일종의 자연적 관찰을 통하여 이뤄진다. 기존의 인식론적 논의를 모르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내게 감관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단일하게 이미지라고 설정하는 것에 특별한 난점은 없다. 거기에 다른 사물과 신체를 서로 다른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난점은 없다. 그가 제시하는 대로 내가 지각하는 사물들과 나의 신체는 일단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사물은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반면 나의 신체는 나의 의도를 따른다. 그리고 일단 신체를 움직이는데 관련되는 나의 의도란 내가 지각하는 사물들 서로가 법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들이 내게 주는 영향에 법칙적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반작용하지 않는다. 베르그손은 신체의 이런 특성이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이는 다른 이미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성이며 물질, 지각, 표상, 의식 등의 개념들도 행동을 통해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물질적 이미지들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신체 이미지가 위의 개념들의 재정의 뿐 아니라 실재론과 관념론의 여러 난점을 해결할 중요한 착상으로 등장한다.<sup>22)</sup>

---

19)같은 책, p.44.

20)같은 책, p.42.

21)같은 책, p.45.

22)이미지를 설정하고 신체를 베르그손이 도입하면서 신체 이미지가 지니게 되는 모든 특성들의 열거는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Suzanne Guerlac, *Thinking in Time - An introduction to*



## 2-2 신체 이미지와 신경계

이런 신체 이미지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 역시 이미지인 신체의 신경계이다. 유입 신경은 외부 이미지의 영향을 수용하고 중추인 뇌는 그 영향에 어떤 반응을 할지 결정하며 유출 신경을 통해 다른 물질적 이미지의 영향을 신체의 행동을 통해 되돌려 보낸다. 여기서 신경계가 더 복잡할수록 다양한 물질적 이미지들의 영향을 수용하는 능력의 증가와 그 수용된 자극들에 대한 더 다양한 가능한 행동의 증가, 그리고 다른 이미지에 행사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식들이 관련된다. 결국 의식이란 이런 신체의 활동성이며 지각은 이런 신체의 활동성과 물질적 이미지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주어진다. 베르그손은 이런 신경계의 기능에서 신체라는 이미지는 물질적 이미지가 자신과 다른 물질적 이미지의 영향을 그대로 반사하거나 전달하는 것과 달리 항상 자신이 물질적 이미지에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의 관점에서 물질적 이미지의 영향을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 행동이 법칙적인 물질적 이미지의 체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새로움을 불러오며 신체 이미지는 항상 그러한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이런 신체 이미지의 특성이 의식적 지각의 기초가 된다.

이미지 개념을 도입하며 우리는 이미 신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다르게 비결정적인 새로움을 이미지들의 체계에서 낳는 것으로 관찰한 바 있다. 그는 이 비결정성을 단순한 관찰로부터 뿐 아니라 신경계의 기능으로부터도 보여주려고 한다. 이미 유입신경과 뇌, 유출신경의 기능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서 뇌의 기능이 특히 문제가 된다. 그의 표현을 따르면 뇌는 “일종의 중앙전화국과 다른 것일 수가 없다.”<sup>23)</sup> 즉, 유입신경을 통해 전해진 자극을 유출신경을 통해 행동으로 연결한다. 그런데 이 연결의 방식은 주어지는 자극과 행동을 물질적 이미지들 서로의 관계처럼 필

---

*Henri Bergson*, Itas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p.113~114.

23) 베르그손, 앞의 책, p.59.

연적인 법칙으로 잇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 이 뇌수질 속에는 주변에서 온 하나의 동일한 진동에 무수히 많은 운동 방식들이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에, 이 진동은 거기서 무한히 분할되는, 따라서 단지 시발적인 무수한 운동적 반응들로 사라지는 능력을 가진다.”<sup>24)</sup>

이 “시발적인 무수한 운동적 반응들로 사라지는” 진동은 유입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기는 했지만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뇌의 반응이며, 이런 뇌의 반응은 유입신경의 자극을 통해 들어온 운동을 “운동 방식들 전체를 열어 놓아 자신 안에 있는 가능한 모든 반응들을 그려보게 하고, 주의를 여러 갈래로 분산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게끔 하는”<sup>25)</sup><sup>26)</sup> 기능과 관련된다. 이렇게 뇌가 주어진 자극을 분석하고 그에 반응할 행동기제를 선택하는 기관이라면 좀 더 발달된 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더욱더 복잡한 운동기제를 보유하게 되고 그 복잡한 운동기제가 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의 요소들 또한 그와 상응하여 복잡하고 세밀해진다. 이렇게 된다면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더욱더 물질적 이미지의 필연적 상호작용과는 다른 선택의 폭을 넓게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경계의 발달과 신체 이미지가 행동으로 행사하는 비결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베르그손은 이끌어 낸다.

“이와 같이 해서 신경계가 우리 행동에 남겨놓는 선택의 폭은 커지는데, 신경계의 완벽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일 신경계가 동물 계열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행동을 점점 덜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면, 신경계의 진보를 따라

---

24)같은 쪽

25)같은 쪽

26)이는 『정신적 에너지』의 다음과 같은 비유가 이해를 돕는다. “뇌는 판토크림의 기관이고 오직 판토크림만을 위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정신적 삶을 모사하는 것이며, 정신적 삶뿐만 아니라 정신이 적응해야 하는 외부의 상황을 모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Henri Bergson, *L'Energie spirituelle*, PUF, 2009, p.47.

진보하는 지각 역시 순수 인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동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지각 자체의 점증하는 풍부함이란 사물들에 대한 생명체의 행동 속에서 생명체의 선택 앞에 남겨진 비결정성의 몫의 증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안 될까?”<sup>27)</sup><sup>28)</sup>

## 2-3 이미지와 의식적 지각

“생명체의 행동 속에서 생명체의 선택 앞에 남겨진 비결정성”이 바로 의식적 지각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어가 된다. 지금까지 베르그손이 이끌어온 탐구를 잠깐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맨 처음 그는 우리에게 감각관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미지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중에서 신체라는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같이 감각관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적으로 알려지며,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하며 그 행동으로 법칙적인 이미지의 체계에서 비결정적인 새로움을 불러오는 다른 종류의 이미지로 관찰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이미지는 이 신체 이미지를 중심으로 배열되며 이 신체 이미지의 행동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얻었다. 이미지들의 전체는 물질이며, 나의 신체라는 이미지의 가능적 행동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물질에 대한 지각이라 부른다. 이런 신체 이미지의 특징은 신체를 이루는 신경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더 뚜렷해진다. 신경계의 기능은 신체의 외적 이미지들이 신체에 행사하는 작용들을 유입신경을 통해 수용하고 그런 작용들은 뇌에 ‘시발적 운동’들을 그려내며 그 중 어떤 것은 선택되어 유출신경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다른 물질적 이미지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필요없는 것이었다. 신체 이미지는 이런 다른 물질적 이미지들의 작용들 모두에 응답하

---

27) 베르그손, 앞의 책, p.60.

28) 이 비결정성을 지각의 문제 뿐 아니라 베르그손 철학 일반에서 잠재성(virtuality) 개념과 연결하는 시도로 다음의 예가 있다. Keith Ansell Pearson, *Philosophy and the Adventure of the Virtual*, New York: Routledge, 2002, p.140~p.143.

지 않으며 그 중 특정한 작용에 대한 응답을 선택한다. 이 사실이 신체 이미지의 행동을 통한 비결정성이라는 특성을 강화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 와중에 우리는 실재론과 관념론 같은 기존의 인식론적 입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지라고 설정했던 것들이 그 실체의 속성으로서 연장성을 갖고 있다거나 사물적 실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는 관념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탐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은 이미지들 뿐이다. 베르그손은 신체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특성이 신경계라는 이미지의 기능과 작동방식에 기인한다는 사실에만 의지해 지각을 설명하고자 한다.<sup>29)</sup>

비결정성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물질 이미지들의 상호작용과 신체 이미지와 물질 이미지들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된다. 신체 이미지의 행동이라는 특성은 뇌가 행동을 통해 물질 이미지들에 가할 작용을 시발적 반응을 통해 그려낸다. 즉, 실제로 행사한 행동이 아닌 행사할 경우 그 행동이 가할 물질 이미지들의 변양을 그려낸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지각이다. 그러므로 반사적 행동과 같이 유입신경에 가한 물질 이미지의 작용이 뇌의 시발적 반응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달리 말해 뇌가 물질 이미지의 작용을 중개함으로써 유출 신경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경우 지각은 감소한다.

즉, 지각은 이미지들의 체계 전체인 우주 안의 물질적 이미지들 중 이와 다른 신체 이미지가 행동을 통해 변양 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인 것으로 정의된다. 그 행동과 무관한 이미지들은 지각을 통해 표상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지각은 그 자체가 이미지이되 신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에 행사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에 관련된 이미지이다. 이를 설명하

---

29)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초에 이미지만을 설정했지 시간과 공간을 먼저 설정하고 이미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자.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도 각각 행동과 지각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지 그 역은 아니다.

기 위해 베르그손은 두 가지 유비를 제시한다. 첫째는 빛의 전반사 현상이다.<sup>30)</sup> 빛이 한 대상을 비추고 있고 그 대상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다시 돌아올 때 빛은 광원과 대상 사이에 이어진 띠처럼 보일 것이다. 이 사례에서 빛의 광원은 지각을 통해 알려지는 대상이며 빛이 비춰지는 대상은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데 이 빛을 반사시키는 대상이 신체 이미지가 갖는 잠재적 행동이다. 광원에 빛을 광원의 대상이 전부 반사하고 있는 사태는 한 이미지가 신체 이미지에 가하는 작용이 신체 이미지가 그 이미지에 가할 수 있는 작용과 관련이 있어 지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된다. 반대로 빛이 광원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광원의 빛이 비춰지는 대상에 반사되어 광원이 아닌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지각되지 않는다. 지각 되어야 할 이미지의 작용이 신체 이미지가 가능한 행동을 빚겨가기 때문이다. 즉 지각은 지각될 이미지들의 작용(광원에서 내는 빛)이 신체 이미지가 가능한 행동과(광원의 대상) 관련이 있을 때(전반사) 지각되는 것이다(반사되어 광원으로 돌아온다).

둘째는, 사진 현상에 쓰이는 건판의 비유다.<sup>31)</sup> 표상적 지각은 외부의 자극을 신경계가 수집하여 뇌가 구성하는 방식으로 뇌에서 찍어내는 사진이 아니다. 사실 우주 전체가 항상 찍히고 있는 사진이고 우리의 신경계는 그 항상 찍혀지고 있는 사진에서 신체 이미지의 가능한 행동이라는 필터가 계속 걸러내는 이미지를 구성하며 그 걸러진 이미지가 표상적 의식이다.

---

30)같은 책, p.70~71.

31)같은 책, p.71~72.

### 3. 이미지 개념에 대한 내재적 평가

이상이 다음과 같은 규칙의 지도에 따른 베르그손의 물질과 지각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는 사물을 단지 이미지들의 형태 아래서만 포착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미지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오로지 이미지들과 관련해서만 제기해야 한다.”<sup>32)</sup>

즉, 감각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 주어지는 물질적 이미지와, 물질적 이미지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면서도 내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그와 구분되는 또 다른 이미지인 신체 이미지를 실재론, 관념론 같은 어떤 인식론적 입장도 잇은 채 발견하고, 행동이라는 신체 이미지의 특성을 통해 물질과 지각에 대한 규정을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베르그손이 천명하는 위의 규칙을 그 자신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그의 결론을 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일 것이다. 즉, 그가 이미지를 설정하고 물질과 지각을 “이미지와 관련해서만” 이끌어 낼 때, 이미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물질과 기억』의 작업 전체를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다.

#### 3-1 이미지 개념과 외부사물의 실재성 문제

인식론에서 외부사물의 실재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인식론의 교설이든 나름의 해명이 필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미지를 설정하고 지각을 도출하려는 베르그손에게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로 여겨진다.

---

<sup>32)</sup>같은 책, p.52.

다음과 같이 기존의 인식론들이 해명을 위해 어떻게든 고려하는 문제들을 이미지의 성질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며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

“이미지가 지각되지 않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표상되지 않고도 현존할 수 있다.”<sup>33)</sup>

“이것은 결국 이미지들에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것 사이에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34)</sup>

물론 상식인으로서 지각되지 않고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의 정면에 있는 A라는 사물을 보고 있다고 하자. 그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그 전까지 그가 보고 있던 A는 이제 지각되지 않는다. 이 때, 그렇다고 A가 지금은 지각되지 않으므로 없다고 여기는 것은 확실히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베르그손이 시초에 이미지를 감관이 열리고 단힘에 따라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정의했음을 상기하자. 이렇게 감관에 의해 이미지를 정의한다면 감관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지의 존재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든 철학적 입증이 필요하다.

### 3-2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과학적 법칙에 종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이미 본 것과 같이 이미지의 탐구는 이미지들의 전체에서 신체 이미지를 구분하고 그 이미지의 특성에서 물질과 지각을 정의하며 표상적 의식까지 설명하는 데까지 다다랐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베르그손의 주장

---

33)같은 책, p.66~67.

34)같은 책, p.71.

이 다른 견해와 그 견해에 대한 그의 비판과 관련 없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리된 이미지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미지 개념을 설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당화 없이 전제하는 암묵적인 요소들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가 이미지를 설정하고 물질과 지각까지 정의하게 되는 과정에서 천명하는 그의 방법이 개념적 분석이 아니라 직접적 관찰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의 관찰을 통한 기술이 올바른 기술인지가 그의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처음 이미지를 설정할 때 그와 동시에 그가 이미지에 부여하는 속성이다. 외적 이미지들이 완전히 과학적 법칙성에 따라 상호작용한다고 기술할 때 이것은 관찰에 따른 정당한 기술일까 아니면 입증되어야 할 어떤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단순한 주장일까? 또, 신체가 정말 이미지들의 체계에서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원인일지도 단순하게 그렇다고 가정된다. 이는 이미 베르그손이 전작인 『의식에 직접적인 것들에 대한 시론』에서 자유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 바 있으므로 그 결론을 전제삼아 주장한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sup>35)</sup> 그러나 신체라는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달리 비결정적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에 가깝다. 비록 상식적 태도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신체적 행위가 어느 정도 물질의 필연적 법칙성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3-3 이미지만을 함수로 놓고 표상적 의식을 설명하는데에 따르는 난점

---

35) Worms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베르그손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먼저 지속의 발견은 심리적 삶과 자연적 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의식적 삶의 두 측면 또한 구분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두 측면 중 공간과 혼동하여 우리의 지속에는 드물고 힘들게 접근한다. 즉, 외부의 공간, 사회적 삶과 언어는 지속을 분해하며 우리의 고유한 실재를 가린다. 이런 공간과 지속의 명료한 구분은 우리의 내적 삶이 원칙적으로 예측불가능하며 지속적인 변화이고, 필연성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시론』의 결론은 우리의 심리적 삶의 영역에서만 자유의 가능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지 심리적, 물질적 측면을 모두 가진 신체의 비결정성 자체를 끌어낼 수는 없다. Frédéric Worms. *L'Âme et le corps - Bergson*. Paris: Hatier. 1992, p20~22.



또 다른 문제는 표상적 지각의 성립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애매모호함이다. 베르그손은 결코 뇌수의 물질적 운동이 의식적 표상을 산출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sup>36)</sup> 그렇다면 이미지를 긍정적인 서술로만 제시하기 위해 건너뛰었던 표상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학적 주장과 그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신경계의 기능에 대해 신경 생리학자들은 외부의 물질적 자극을 중추에 전달하고 표상을 산출한다고 대답한다. 이에 대한 베르그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내가 뇌수적 진동이라 부르는 이 이미지가 외적 이미지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후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포함해야만 할 것이고, 물질적 우주전체의 표상이 이 분자적 운동의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제의 부조리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지 진술하는 것으로 족하리라. 뇌가 물질적 세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지, 물질적 세계가 뇌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세계라는 이름을 갖는 이미지를 제거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뇌와 그 일부분들인 뇌수의 진동을 동시에 제거하게 된다. 반대로 이 두 이미지들, 즉 뇌와 뇌수의 진동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라. 가정상 당신은 그것들만을, 즉 아주 하찮은 것, 거대한 그림 속에서 미미한 세부만을 지우는 것이다. 그 그림 전체, 즉 우주는 전체적으로 존속한다. 뇌를 전체적 이미지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진실로 자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뇌는 가정상 이 이미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경들도 신경중추들도 우주라는 이미지의 조건이 될 수 없다.”<sup>37)</sup>

---

36) 베르그손의 표상주의에 대한 반대는 다음이 상세하게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John Mullarkey, *Bergson and Philosoph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0, p.44~48.

37) 베르그손, 앞의 책, p.40.

그에 따르면 뇌의 기능은 표상에 있지 않다. 이미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미지로 놓을 때 이런 입장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이미지로 모든 것을 놓는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뇌가 표상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는 여기고 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모든 것이 이미지로 주어진다. 여기서 실재론자들처럼 감각적 성질들이 주어지고 그 감각적 성질의 담지자로서 물질이 있다는 주장도, 관념론자들처럼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정신적 속성을 갖는다는 주장 모두를 잇기를 요구한다. 즉,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는 것을 물질, 속성, 관념 등으로 나누고 구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이 두 주장 모두를 잇고 이미지를 받아들인다면 특정한 이미지가 다른 어떤 이미지를 포함한다거나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경생리학자들은 뇌가 표상을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베르그송은 곧 뇌라는 이미지가 표상이라는 이미지들의 체계를 복사하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산출하거나 이미지가 아닌 어떤 것을 이미지로서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처음에 이미지를 놓았고 그 이외를 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미지의 복사나 산출이 가능한 이미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베르그송의 입장에서 볼 때 뇌가 이미지를 산출한다는 주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뇌라는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미지는 각자가 서로 고립되어있지 않다. 신경생리학자들의 주장은 뇌라는 기관이 이미지를 산출한다고 표현하든 표상한다고 표현하든 우주라는 이미지들의 거대한 체계에서 뇌라는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의 연대성이 부정될 수 있고 뇌라는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로부터 고립되어도 표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된다.

이런 베르그송의 주장을 뇌의 표상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신경 생리학자들이 뇌가 표상을 산출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베르그송이 비판할 때 이해하고 있는 의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잠시 베르그송의 제안을 잊어두고 뇌가 표상을 산출한다는 주장의 함의를 살펴보자. 신경계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고 그 자

극을 기초로 뇌가 어떤 작용을 한다는 점까지는 신경 생리학자들과 베르그손 양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거기서 뇌의 작용이 표상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다. 일단 신경 생리학자들의 주장을 구성해본다면 외부의 사물은 신경계를 통해 뇌에게 어떤 자극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뇌는 표상을 구성해내고 이 표상이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해 갖는 지각이 된다. 여기서 신경 생리학자들이 반드시 표상적 실재론자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외부의 사물과 그 사물에 대해 뇌가 산출한 표상이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사물이 우리가 표상하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든, 사물이 그 표상의 근거가 되지만 표상 그대로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든 뇌의 기능이 표상작용에 있다는 신경 생리학자들의 주장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다. 문제는 여기서 베르그손이 주장하는데로 정말 어떤 부조리함이 있는가이다. 표상은 말 그대로 그것이 재현할 어떤 원본의 존재를 가정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뇌의 표상작용이 없어짐을 가정할 때 그 원본 또한 없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베르그손은 신경생리학자들의 주장이 뇌와 뇌의 운동을 제거함으로써 우주라는 전체 이미지 모두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38)</sup> 그러나 신경생리학자들이 우리의 표상을 우주 모든 사물의 근거로 놓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표상의 근거를 사물로 놓았다.

즉, 그들은 표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물에서 출발하여 그 사물에 기초한 물리적 작용을 신경계가 수용하고 그 신호들을 뇌가 표상으로 구성한다는 주장하는 것이지, 베르그손의 지적대로 뇌가 이미지들을 산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베르그손의 신경 생리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위의 지적은 부당한 것일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베르그손의 이미지론이 갖는 한 함축이다. 베르그손은 이미지가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오직 이미지만을 놓고 이미지만의 함수로 물질과 지각을 설명하기를 의도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미지를 뇌가 산출한다는 주장은 곧 그가 기술하는대로 이미

---

38)같은 책, p.40~41.

지의 총체인 우주를 뇌가 산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즉, 그가 모든 것을 이미지로 볼 것을 제안할 때 그가 제안하는 탐구의 방식대로 따른다면 신경 생리학자들의 주장은 그 탐구에 들어설 여지가 없어진다. 신경 생리학자들이 뇌의 표상기능에 대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사물과 표상의 구분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베르그손은 이미지만을 놓으며 사물과 표상이라는 두 항으로부터 시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경 생리학자들이 왜 뇌의 표상기능이라는 가설에 다다랐는지 과정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신경 생리학자들이 굳이 자신들의 논의를 위해 인식론적 고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사물이 존재하고 그 사물의 물질적 작용이 신경계를 통해 뇌가 표상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것이다. 즉, 뇌는 외부 사물에 대한 사진을 찍는다. 여기서 외부 사물은 피사체가 될 것이며, 사진을 찍는 사진기는 뇌가 될 것이다.

베르그손은 여기서 외부 사물과 표상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사진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도 피사체를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진이 찍히는 것과 독립된, 외부 사물들이 구성할 피사체는 없으며 우주는 곧 지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사진이며 뇌는 그 사진에서 신체의 행동을 기준으로 사진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거나 혹은 그대로 드러낼 필터와 같은 기능을 한다. 여기서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자. 우주가 찍히고 있는 사진이라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먼저 사진의 비유를 계속 취하고자 한다면 베르그손의 관점에서는 피사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이것이 베르그손의 이미지의 관점에서 본 지각 이론을 이해하는데 쟁점이 될 것이다.

표상적 의식에 대한 베르그손의 이런 설명은 결국 다음과 같은 함축을 지니게 된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지각될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지각은 결국 모든 이미지의 본질적 속성이다. 다음의 구절이 이렇게 결론 내는

것 이외에 어떻게 다르게 읽힐 수 있겠는가? 물질은 우리의 지각 능력과 관계없이 서로를 지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적인 임의의 질점에 대한 지각은 그것의 순간성 속에서, 우리의 지각보다 무한히 더 넓고 더욱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점은 물질적 세계의 모든 점으로부터 작용을 모으고 전달하는 반면에, 우리의 의식은 그것들로부터 단지 일정한 측면들에 의해 일정한 부분들에만 도달하기 때문이다”<sup>39)</sup>

“물질적 세계의 모든 점으로부터 작용을 모으고 전달하는 반면에”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표상의 근거는 이미 물질적 작용에 있다. 이는 곧 신경 생리학자의 입장에서 뇌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 이미 물질성의 속성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미지론에서 뇌가 표상의 기능이 있다는 신경 생리학자들의 주장을 베르그손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뇌의 표상기능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지각의 속성들을 물질 자체의 속성으로 설정하는데서 가능한 것이다. 신경 생리학자들에게 사진이 찍히는 것은 뇌에서이지만 베르그손에게는 물질들의 우주 자체가 사진이 찍히는 곳인 것처럼.

베르그손은 그의 이미지론에 대한 반론이 떠오른다면 실재론이나 관념론 어느 한 쪽 입장을 전제하고 있기에 제기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보기를 권유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하자. 그리고 최초에 이미지를 설정한 후의 그의 관찰을 따라가서 그의 의식적 지각에 대한 결론에 동의했다고 하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지적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고 해보자.

“단순히 가능한 이 물질적 덩어리 속에서 사람들은 내가 나의 신체라고 부르는 특별한 대상을 분리할 것이고, 이 신체 속에서 지각

---

39)같은 책, p.71.

중추들을 분리할 것이다. 사람들은 공간의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와서, 신경들을 따라 퍼지고, 중추들에 도달하는 진동을 나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돌발 사태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 세계, 뇌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뇌 속에서 구별되는 중추들, 이것들을 갑자기 몰아낸다. 그리고 마술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처음에 놓았던 것의 표상을 출현하게 한다.”<sup>40)</sup>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마술 지팡이를 포기하고, 당신이 처음에 들어섰던 길로 계속 가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sup>41)</sup>

그런데 여기서 “마술 지팡이”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 표상적 지각을 설명하기 위해 “마술 지팡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닐까? 즉, 베르그손은 신경 생리학자들이 뇌와 신경계에 주문을 거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또한 뇌와 신와 신경계 대신 물질적 이미지의 총체인 우주에 주문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의식적인 임의의 질점”을 우리의 지각보다 더 풍부한 지각을 가진 것으로 설정하는 마술을 부리면서 말이다.

신경 생리학자들의 뇌에 표상이라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실재론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다. 물질과 지각이라는 두 항을 전제한다면 물질에서 지각이 따라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반박하는 사실이 없다면 자연스럽다. 베르그손은 이미지의 총체인 물질에서 생명의 자발성에 따라 절취되는 것이 지각이라 말함으로써 신경 생리학자들의 진행과 같이 나아가면서도 결국에는 뇌의 표상기능을 부정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이미 지각을, 지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미지로 설정함으로써 지각의 성립을 위해 설명해야 할 표상작용이라는 것이 그 이미지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근거 없이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

40)같은 책, p.73.

41)같은 책, p.75.

신경 생리학자들도 베르그손도 모두 외부의 물질적 자극과 그 자극이 신경계에 일으키는 온갖 생리학적, 화학적, 물질적 작용이 곧 우리의 지각과 동일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요컨대 뇌의 표상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물질에 즉,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그 근거를 제공한다. 현대적 조건에서 뇌의 표상기능을 고수할 신경 생리학자들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표상과 물질의 관계를 잉크로 인쇄된 물리적 문자들과 그 문자들의 의미의 차원처럼 구성해서 뇌의 기능은 마치 신경계가 받은 물리적 정보를 뒤의 것으로 표상하는데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발달된 정보과학 기술은 신경계의 물질적 반응들이 표상과 맺는 관련에 점점 더 좋은 재료를 제공해준다. 즉, 그들의 입장과 베르그손의 입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면 물질 일반이 이미 표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이며 특정된 물질인 뇌가 표상하는지, 물질 일반에 어느 정도까지 그 기능을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어찌되었든 물질 자체의 성질에 지각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는 베르그손의 물질론은 형이상학적 가정이며 이미지의 관찰과정에서 사실의 선만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숨겨진 전제다.

### 3-4 이미지론을 전개시키는 방법의 문제

마지막 문제는 베르그손은 인식론에 관련된 문제를 신체와 신경계의 기능과 같은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답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인식론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경과 뇌는 그 자체가 이미지로 제시된 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근거들이 되며 그 근거들을 통해 어떤 주장을 제시하든 그것은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신경계가 신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이 신체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물리 화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물론 실증적인 영역이 된다. 그러나 그 기능을 물리 화학적 사실들을

넘어선 인식의 기능이나 의식, 지각의 문제를 다룰 때 제기되는 개념의 문제들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가 위가 음식물을 소화할 때 위액의 분비량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진술하는 것은 분명 실증적인 진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신경계와 위의 기능도 물리 화학적인 진술에서 멈춘다. 그러나 신경계가 행동을 위해 존재하는 기체이며 그런 신경계의 기능에서 의식적 표상의 가능성이나, 신체라는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다르게 자신이 그 이미지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항상 그리게 된다는 주장까지 이를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은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실증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임의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에 대해, 결정된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불리는 것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그것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탐사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가능할 뿐인 여러 작용들을 미리 시도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작용은 자신의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의 신체라고 부르는 이미지의 역할이 다른 이미지들에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능한 여러 과정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신체라는 이미지가 주변의 이미지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다소간의 이점에 의해서는 아마도 신체에게 암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이미지들은 내 신체가 그것들로부터 끄집어 낼 수 있는 이점을 그것들이 나의 신체를 향하고 있는 국면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려 주어야만 한다.”<sup>42)</sup>

신체가 자신의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다른 사물들에 그리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물리화학적 진술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다. 즉, 신체의

---

42)같은 책, p.42~43.



활동성이라는 개념은 신체의 행동에 대해 처음 베르그손이 제안한 가정 아래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으로 의식적 표상까지 설명하는 것은 무전제가 아닌 어떤 전제를 숨겼다고 볼 수밖에 다.

즉, 베르그손이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이미지와 그 관계로만 물질과 지각을 해명할 것과 실재론과 관념론의 논의를 잇을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미지에서 표상적 지각까지 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규칙만으로 포괄되지 않는, 혹은 이 두 규칙으로 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암묵적 전제들을 미리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 암묵적 전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철학사에서 문제가 된 진술들을 기술의 차원에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데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미지의 도입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이미지로 선택되는가에 대한 설명만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다뤘다는 점이다. 또 베르그손 철학의 총체적인 상 아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전혀 검토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제들은 아니다. 『물질과 기억』의 주제는 이런 전제들에서 정신과 물질의 소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보여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미지의 선택에서 도입한 토대들이 실제적 운동 비판을 거쳐 어떻게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에 이르는지 그 과정에서 이원론의 두 항을 구분하는 연장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재해석 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런 결론에 다다른 후 위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 4. 이원론 문제의 정식화와 실재적 운동

이미지의 한정과 고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4장에서 베르그손은 서문에서 자신이 밝힌 이원론의 구상이 가능할 조건에 본격적으로 대면한다. 지각과 기억의 차이를 이미지 개념을 통해 명료화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을 성공적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구분을 넘어 그것의 일치, 적어도 이원론의 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 문제는 “아주 예민한 형태”<sup>43)</sup>로 제기된다고 베르그손은 표현한다. 전통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원론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서로 다른 것으로 설정된 두 항의 일치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에 대해 베르그손은 이미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 그 자신이 이원론의 두 항을 부정적인 속성이 아닌 긍정적인 속성으로 정의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신을 비연장, 비물질이라는 부정적 성질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설정은 이원론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가 보기에 전통적인 이원론의 난점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모든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모호함은 우리 오성이 한편으로는 연장과 비연장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질과 양 사이에 세운 이중의 반대명제에 기인한다. 마치 한 순수한 단위가 본질적으로 가분적인 복수성에 대립하듯이, 정신이 우선 물질에 대립한다는 것, 게다가 우리의 지각은 이질적인 성질들로 구성되는 데 반해 지각된 우주는 동질적이고 계산가능한 변화들로 분해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비연장성과 질이, 다른 편으로는 연장과 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 항으로부터 첫번째 항을 도출한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을 거부했다. 그러나 우리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이 단순히 첫번째 항의 구성이라는 관념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유물론에 대항해서 지각은 뇌의 상태를 무한히

---

43)같은 책, p.301.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관념론에 대항해서 물질은 물질에 대해 우리가 갖는 표상, 즉 정신이 지적인 선택에 의해 모아들이는 표상을 모든 면에서 넘친다는 것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 두 대립된 교설들 중에서 한 교설은 신체에, 다른 교설은 정신에 진정한 창조의 능력을 부여한다. 전자는 우리의 뇌가 표상을 산출한다고 하고, 후자는 우리의 오성이 자연의 계획을 그린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두 교설들에 대항하여 우리는 동일한 증거, 즉 의식의 증거를 내세운다.”<sup>44)</sup>

이런 상황은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다.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들에 우리는 어떤 성질을 항상 부여한다. 일상적으로 사물들은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고 자신의 부피를 자신이 갖는 데두리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부피는 공간 안의 것으로 여겨지고 동시에 어떤 측정될 수 있는 양으로 드러난다. 이원론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데카르트는 연장 실체를 설정함으로써 존재론적 업적만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기하와 대수를 결합함으로써 그런 연장이 기하학적 공간을 통해 해석되어 좌표를 통한 양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간파한 수학자로서의 업적도 이뤘다. 공간 상의 위치와 그 공간 안의 사물의 모양 또한 양과 수식으로 환원하고 계산 가능한 양적척도로 측정, 계산, 응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기술들은 현대적 테크놀로지의 중추를 이룬다. 현대의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미 지도는 이런 양적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2차원 평면에서 지도를 표시하고 지도 위의 목적지와 운행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현대의 네비게이션 기술은 위와 같이 모든 것을 양적 척도와 그 척도들의 관계식으로 공간을 표현할 수 있기에 가능한 기술이며 이런 점을 볼 때 베르그손이 연장과 양을 동일한 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

그런데 다른 한 편, 우리의 지각은 이질적인 성질로 구성된다. 시각과 청각, 촉각, 미각에 각각 상응해서 주어지는 색과 소리, 촉감, 맛 등은

---

44)같은 책, pp.301~302.

우리가 그것을 양적인 척도로 변환하는 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 자체로 알려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오감의 요소들을 자극하는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감각이 주는 질들만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질들은 서로 환원, 변환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물론은 이런 질적이고 비연장적인 요소도 양적이고 연장적인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공간을 양화하는데 성공했고 그런 성공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실증한 것처럼 질적 감각의 성질은 그런 감각을 갖는 감각하는 사람 바깥에서 자극하는 물질적 성질이 이미 양화되고 연장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원하며 이런 양적 성질이 질적 성질에 비해 우선적이라 여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따를 경우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뇌의 표상 문제임을 베르그손은 이미 1장에서 표상을 위해 선택되는 이미지를 논하면서 지적한 바 있고 지각이 뇌의 상태를 무한히 넘어섬을 근거로 유물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념론은 반대로 비연장적이고 질적인 지각에서 지각된 우주의 동질적이고 계산 가능한 체계를 도출한다. 그들은 비연장적이고 질적인 지각이 우선성을 지닌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비연장적, 질적 지각들의 연합에서 연장성과 양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시각의 주어진 요소들은 그것들을 연합하는 보는 이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성이 없는, 보여지는 것들 사이의 거리감이나 공간감이 없는 상태로 주어진다. 관념론은 이런 비연장, 질적 요소들의 연합이 연장, 양적요소의 기원이라고 본다. 베르그손은 이 또한 이미지를 정의할 때 물질성을 표상적 지각과 분리시키고 관념과 독립적인 물질의 실재성을 옹호했던 1장의 논의를 상기시키며 거부한다.

이런 비연장과 연장, 질과 양 사이의 소통은 베르그손이 이원론을 취하는 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이미지를 통해 지각을 정의하면서 “사물의 지각된 이미지들은 신체의 이미지 밖으로 되던져졌”<sup>45)</sup>으며 “지각을 사물 자체에 위치시켰다.”

이것이 갖는 함의는 이미 외부의 사물이 우리의 지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며, 물질적 연장은 기하학자들이 말하는 순수한 기하학적 연장이 아니라 말하는 말이 된다. 우리의 지각 자체는 엄밀한 수학적 의미에서의 기하학적 연장의 속성을 지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각이 이미지의 총체라는 물질에서 나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의 절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질과 지각의 관계가 전체와 부분의 문제라면 부분에 속하는 속성은 전체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각은 외부 대상에 대한 신체라는 이미지의 가능적 행동으로 정의되었으므로 지각이 지닐 연장적 속성이 있다면 그 속성 또한 우리의 가능적 행동과 관련된 연장성이 되고, 기하학자가 말하는 지성이 연역적으로 구성하는 순수기하학적 연장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물질적<sup>46)</sup> 연장을 기하학적 연장과 구분하며 베르그손은 확장(l'extention)<sup>47)48)</sup>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이런 확장이 연장과 비연장을 접근시킬 중요한 착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확장이라는 개념을 확보한 후, 베르그손은 이런 양과 질, 연장적 운동과 비연장적 부동성이라는 두 항의 접근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는 항상 이미지를 통해 정의되는 두 개념인 지각과 물질 이외에 운동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를 가미한다. 이런 논의가 비연장과 연장을 접근시키기 위해 운동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 하에서 어떻게 이원론의 난점이 완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물질과 기억』 4장의 주요 주제가 된다.

#### 4-1 운동의 불가분성

“I. 모든 운동은 정지에서 정지로 가는 과정인 한 절대적으로 불가분적

---

45)같은 책, p.303.

46)순수 공간 안의 연장성을 지닌 물질로서가 아닌 베르그손이 이미지를 정의하며 이미지의 총체라고 정의한 의미에서 물질

47)“물질적 연장은 오히려 우리의 표상의 불가분적 확장l'extension과 비슷하다.” 같은 책, p.303.

48)l'étendue와 l'extension의 구분은 박종원 역의 지시를 따랐다. 두 용어의 상세구분은 같은 쪽의 역주1)을 참조.

이다.”

먼저 베르그손은 모든 운동이 운동을 하는 한 나뉘질 수 없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 그가 이미지를 도입하면서 취했던 태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를 도입하면서 그는 우리가 물질이나 정신에 관한 이론들, 외적 세계의 실재성이나 관념성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무지한 관찰자를 상정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논의 역설이나, 공간성이라는 개념, 어떤 것이 자기동일성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등에 무지한 관찰자를 가정해보자.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운동할 수 있고 외부의 사물들 또한 그 운동에 영향을 받든 받지 않든 운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정지 또한 일상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그 정지에서 운동으로 가는 것이 그가 또 다른 운동을 가한 경우이든, 그 운동하는 것이 스스로 정지하게 되는 경우이든 정지 또한 우리가 그것에 어떤 존재론적 논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다.

베르그손이 이 명제를 제시한 후 뒷받침 하는 사례로 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이고 신체적인 운동이다. 일단 베르그손이 제시하는 사례는<sup>49)</sup> 직선과 점이 도입되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취하는 의도적이며 신체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운동이 불가분적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를 들기 위해 설정된 행동이지만 그의 설명을 약간의 순서를 바꾸어 따라가 보자. 지금 내 신체가 위치한 공간이 일단 기하학자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신체가 펼쳐진 공간 아래서 내 손이 운동을 시작할 점과 그 운동을 끝마치고 정지할 점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그런 순수한 연장의 성격과 배치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두 점 A와 B를 설정하고 그 두 점을 잇는 선을 설정했다고 해 보자. 그리고 그 선을 따라 A에서 출발해 B에서 정지하도록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때 나의 신체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다. 자신의 손을 점A에서

---

49)같은 책, p.314.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운동이 선분 AB를 지나는 모든 과정, 점 B에서 정지한 손 등 모든 과정을 시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그 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 주는 모든 신체의 감각을 어떤 정지도, 끊김도 없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나는 이 운동을 실험으로 여기고 관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순수한 연장적 공간 안에 있다고 가정했고 그런 가정 아래에 내가 행사할 운동의 두 정지점을 기하학적 공간 안의 한 점으로 설정하고 손을 움직였다.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선분은 점의 모임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항상 선분에 속하는 임의의 점을 우리는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설정한 손의 운동이 정지하는 정지점 B가 아닌 그 임의의 점을 선분의 끝으로 하는 임의의 선분으로 잘라낼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기하학적인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기하학적인 추론을 내가 손을 움직일 때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먼저 나는 선분 AB를 잘라내 새로운 선분을 만든 것처럼 내 손을 A에서 출발하고 B에서 멈추도록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사이에서 그 안에서 취한 점을 새롭게 정지점으로 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분 AB를 따르도록 내 손을 움직여 그 기하학적인 선분에 내 손의 궤적을 맞췄을 때 내 손의 궤적에서 그 선을 이루는 점 중 한 임의의 점 C를 설정하여 선분 AB안에서 절단된 새로운 선분 AC를 궤적으로 갖는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처음과 다른 운동을 의도해야하고 그 운동은 우리가 처음 설정한 선분 AB를 궤적으로 하는 운동과 비교할 때 내가 시각으로 지각하는 손의 움직임도, 손을 움직이는 동안의 내가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도 다른 운동으로 내게 주어진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놓았던 설정을 바꿔보자.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기하학적인 공간, 기하학적으로 모든 요소가 기술 가능한 순수한 연장 안에 있다고 가정했고 그런 공간 안에서 임의의 점을 설정했다. 이런 가정을 취소하고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에 대한 앎도 없다고 해보자.

그리고 똑같이 손을 움직여보자. 나는 더 이상 내 운동의 시작을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운동의 정지도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내 손의 움직임 전체에 있어서 내가 운동을 시작한다는 느낌과 그와 더불어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손의 움직이기 시작함, 그리고 그 운동이 멈춰질 때까지 전혀 끊김 없이 지속되는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다는 신체적 느낌과 그와 같이 주어지는 움직이는 손, 그리고 손이 정지했을 때 정지의 느낌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멈춰진 손뿐이다.

이런 사례가 밝혀주는 것은 운동의 불가분성은 기하학적인 공간 안에 우리의 신체가 위치한다는 기하학적 시선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기하학적 시선에 우리를 위치시켰을 때도 내가 행사하는 운동은 시작과 정지에서 지속적인 것으로, 그 궤적을 선분으로 생각해서 임의의 점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하학적 시선을 거두었을 때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의 운동에서 갖는 지속과 그 속성들은 기하학적 시선에 우선하는 것이지 그 시선이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다. 실재론과 관념론 같은 인식론적 논의에 무지한 관찰자가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관찰하듯 수와 공간, 대수로 변환될 수 있는 기하에 무지한 관찰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낼 것은 그의 운동이 갖는 불가분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물들의 운동을 관찰하는 한, 이런 운동은 기하학의 시선 이전에 있는 것이고 이런 운동이 사물의 사물성과 어떤 심층적인 관련을 맺는가에 따라 물질적 연장이 기하학적 연장과 다르며 그것은 확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 4-2 실재적 운동

“II. 실재적 운동이 있다.”



여기서 베르그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을 기하학자가 다루는 순수한 공간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때 운동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자세히 부연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베르그손은 언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사는 공간을 기하학자들의 공간으로 해석했을 때 과급되는 여러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네비게이션의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네비게이션이 표시하는 지도는 2차원 평면의 점과 도형들로 목적지와 지형지물을 표시한다. 그런데 운동의 상대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네비게이션에서 운전자의 위치표시다. 우리가 운전을 통해 목적지로 가는 운동은 우리가 목적지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네비게이션은 우리가 정지해 있고 우리를 제외한, 네비게이션이 자신에 담아놓은 모든 것이 정지한 우리에게 대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진정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은 내가 움직이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것이든, 내가 정지해 있고 다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든 무엇인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기하학적 시선으로 네비게이션이 보여주는 세계를 다룬다면 반드시 우리의 위치를 고정점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운동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운동하는 운전자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정지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여기서 절대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표현할 수단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하학의 관점에서 무엇이 운동하는지 정할 수 없는 상황은 물리학에서 달라진다.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특정할 수 없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운전하는데 우리가 정지해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이 정지해 있다는 시각을 취하는 것보다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그런 방식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정한다. 즉, 기하학적 관점에서

무엇이 정지하는 것이고 운동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해도 어쨌든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취한다는 것은 어쨌든 운동이 있음을, 둘 중 어느 것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운동의 실재함 또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런 차이는 베르그손이 지적하는데로<sup>50)</sup> 데카르트가 기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는 기하와 대수를 통합하여 공간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단을 발명했다. 네비게이션 기술이 가능한 것도 지도라는 지구 표면을 평면화한 2차원적 평면과 그 위의 사물의 위치, 장소들을 표현하는 좌표와 그 좌표 사이의 관계를 수식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르그손이 말하는 대로 이는 “단지 움직이는 것이 축선들이나 점이므로 다는 오히려 운동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상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1)</sup> 그러므로 그런 좌표 공간 상의 운동에 대해 좌표축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의 한 사물이 정지한 것인지, 사물이 정지한 것이고 좌표축이 운동하는 것인지 어느 쪽을 취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운동이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리학자로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정지해 있는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려면 “장소의 다양성을 절대적 차이들로 삼고 하나의 절대 공간 속에서 절대적인 위치들을 구별해야만 할 것이다.”<sup>52)</sup> 즉, 물리적 공간 안의 한 위치를, 다른 위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일 무수한 점들 중 단 한 점이라도 그런 것으로 설정된다면 동시에 그 점이 아닌 다른 모든 점 또한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며 점들이 모여 이를 선도, 선들이 구성할 2차원 평면도, 그런 평면이 구성할 3차원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구성

---

50) “이 모순은 단순히 데카르트가 기하학자로서 운동을 정의한 후, 물리학자로서 그것을 다루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같은 책, p.324.

51) 같은 책, p.324.

52) 같은 책, p.325.

된 공간은 공간 안의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절대 공간 개념은 이렇게 등장한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이 절대적이라면 기하학에서의 경우와 달리 더 이상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두 점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 사이의 운동 또한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운동을 상대적으로 볼 경우에는 멈춰있는 점이 정지하고 좌표축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좌표축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운동은 더 이상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치를 절대화 한다는 것의 함의는 위치가 가진 질을 인정하거나 한 위치가 “공간 전체에 갖는 관계에 의해서만, 다른 장소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된다”고 보는데 있다.<sup>53)</sup> “한 장소는, 단지 그것의 질에 의해서 또는 그것이 공간 전체와 갖는 관계에 의해서만, 다른 장소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될 것이다.”<sup>54)</sup> 여기서 운동을 관찰할, 등질적 공간에 대한 압도, 기하학자의 공간에도 무지한 관찰자를 다시 도입해보자. 그 관찰자가 네비게이션과는 무관하게 차를 운전하며 신체를 움직이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 운전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며 차를 운전하는 모든 의식과 주의는 그 자체가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볼 때 상대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 상대적이라고 할 때 무엇과 상대적인가? 상대적이기 위해서는 이 운동과 대응될 다른 어떤 항이 있어야 한다. 운전자의 공간상에서 목적지까지의 운동 궤적과 그 공간상의 운동 과정에서 운전자의 의식의 변화가 서로 상대적일까? 그렇지 않다. 모든 운동이 운동하는 사이에 불가분한 것이라면 이 관찰자는 자신의 의식이 변하는 과정이 절대적 변화임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차를 통한 공간상의 운동도 그 운동을 표시한 네비게이션이 자신이 운동한 것으로 보든 공간이 이동한 것으로 보든 절대적으로 볼 것이다.

---

53)같은 쪽

54)같은 쪽

이제 이 관찰자가 이렇게 운동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상대 변화 또는 질의 변화로”<sup>55)</sup> 그에게 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 운동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런 내적인 것 뿐만이 아니다. 신체라는 이미지가 특권적 이미지라고 베르그손이 지적했을 때, 신체는 눈을 통해 내 신체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체 아닌 다른 이미지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운동감과 정념을 통해 내적으로도 알려지기 때문에 특권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런 신체의 운동에 대한 특권적 감각을 통한 변화 뿐 아니라 신체 외부의 이미지들의 변화를 운동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런 변화들 또한 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베르그손이 “사슬의 양 극단”<sup>56)</sup>으로 표현하는 신체가 운동하고 있음을 내적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불가분적으로 드러내는 내 안의 근육 감각들과 내 신체 바깥의 이미지들의 감각적 성질들 사이에서 “외적인 물체들의 운동이 위치한다.”<sup>57)</sup> 이를 지적한 후 그는 운동의 상대성이라는 문제는 ‘운동을 하는 것’인 운동자를 그 운동자가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절단하여 불연속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제기되는 문제임을 밝힌다. 만일 운동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움직이는 사물이 있을 때 움직인 것이 그 사물인지 아니면 그 사물은 정지한 것이지만 그 사물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움직인 것인지는 제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그 조건은 어떤 운동하는 사물이라고 말할 때 그 사물을 개별적인 것으로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물을 놓게 되면 곧 우리는 그 사물과 그 사물이 아닌 것으로 놓게 된다. 그렇다면 그 사물이 운동 할 때 우리는 운동을 상대적인 것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운동이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물의 개별성, 그 개별성이 함축하는 불연속성을 거부해야한다. 그렇다면 결국 절대적 운동이 있다는 말은 운동은 언제나 한 사물의, 우주안의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점, 혹은 도형의 위치

---

55)같은 책, p.328.

56)같은 쪽

57)같은 쪽

이동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변화라는 귀결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운동의 절대성이 성립하기 위해 다음의 명제가 필요하게 된다.

#### 4-3 실재적 운동의 견지에서 본 대상적 분할의 인위성

“Ⅲ. 물질을 절대적으로 결정된 윤곽을 갖는 독립적인 대상으로 분할하는 것은 모두 인위적인 분할이다.”

이 명제는 명제1과 명제2의 연역이 될 것이다. 정지와 정지의 사이에서 불가분적이며 절대적인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운동이 절대적이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이 특정하게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운동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동시에 성립해야 하며 그렇게 항상 두 항이 등장한다면 어떤 항에 대해 다른 항이 운동하는 것인지 그 항이 운동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대적 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운동을 인정한다면 귀결은 모든 것이 운동한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베르그손이 실재적 운동이라 말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화 될 수 있는, 특정한 운동하는 것이 설정되는 운동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변천, 헤라클레이토스적 만물유전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립시켜서 이해하는 모든 개물, 물질적 대상들 각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총체로 정의된 물질 전체로 용해된다.

이는 네 번째 명제가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결론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물질이 분할되며 특정한 대상적 이미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베르그손은 일단 우리가 그런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고립시키고 우리가 갖는 감각적 속성을 그 이미지들이 담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에 대한 서술로 시작해서 그 분할이 인위적임을 보여주고자 한

다.

“하나의 물체, 즉 하나의 독립적인 물질적 대상은 우선 우리에게 성질들의 체계로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 시각과 촉각의 소여들인 - 저항과 색이 중심을 차지하며, 다른 모든 성질들은 말하자면 이에 매달려 있다.”<sup>58)</sup>

이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물질적 사물들은 색과 형태라는 시각적 성질들을 갖고 있고, 직접 접촉했을 때 촉각이 느낄 저항과 질감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여러 속성들의 담지자로서 물질적 사물이 주어진다. 한 사물이 이렇게 여러 성질들을 담지하는 것을 성질들이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시각장은 전체적으로 채색된다. 그리고 고체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촉각은 결코 진정으로 중단됨이 없이 대상들의 표면이나 모서리들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물질적 연장에서 원초적으로 지각된 연속성을 각각이 자신의 실체(substance)와 개별성을 가지는 그만큼의 물체들로 분할하는 것인가?”<sup>59)</sup>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시각장은 특정하게 고립되고 개별화 되어 있는 사물들이 각각 더해져 시각장을 채워 구성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눈에 펼쳐진다. 그런 전체적으로 펼쳐진 시각장 아래서 어떤 물체들이 경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런 경계는 우리의 촉각이 그 물체들의 모양이 갖는 표면을 따라 느껴지는 감각을 지시하는 것으로 주어진다. 즉, 그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시각이 이미 모든 것을 전체로, 시각장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안에 특정한 이미지들을 고립시켜 개체적 사물로 구성한 후, 그

---

58)같은 책, p.329.

59)같은 책, pp.329~330. (번역수정)

개체적 사물의 부동성을 색, 모양, 질감 같은 물질적 성질들을 모아 담은 실체로 설정하는 우리의 일상적 태도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그렇게 전체에서 고립되고 분할된 사물을 설정함으로써 그 사물에 부동성을 부여하고 그 사물의 운동을 등질적인 운동, 즉, 그것이 운동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운동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운동으로 생각될 수 없는 상대적 운동으로 봄으로써 운동과 정지를 설명하게 된다. 이런 등질적 운동이란 결국 운동하지 않는 것 (“자신의 실체와 개별성”)으로 운동을 설명한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운동에서 운동하는 것을 설정할 때, 우리는 운동하지 않는 그 운동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동시에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운동하는 그것이 움직인 것인지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움직인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대적 운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운동하는 것이 움직였다는 시각을 취한다면 그런 시각에서는 그 운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운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만 그 운동하는 것에 속한 성질 중 그것의 위치만이 변하며 그 이외의 모든 성질을 그 운동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담지하고 있다. 즉, 우리는 “영원성과 변화라는 두 항을 분리한 후, 물체들로 영원성을 나타내고, 공간 속의 동질적인 운동들로 변화를 나타내는”<sup>60)</sup> 것이다. 즉, 등질적인 운동이란 곧 상대적인 운동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부동, 불변하는 것의 운동이다. 운동하는 것이 운동하는 도중 항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도중에 달라지는 것은 그것의 위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위치라는 질만 제외하고 달라지는 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등질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고립시키고 그것의 운동에서 물체에는 부동성을 부여하고 운동성과 변화는 위치 변화로만 이해하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1장에서 이미지의 총체로 물질을 놓고 신체라는 이미

---

60)같은 책, p.330.

지의 가능한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로 지각이 설정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명체가 갖는 행동의 필요가 그 원인으로 제시된다. 생명적 존재는 살아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이미 개별적 의식들이 스스로를 행위에 의해 드러내는 타고난 능력은, 생명체들에 각각 상응하는 구분되는 물질적 지대의 형성을 요구한다”<sup>61)</sup>

일단 나의 신체라는 이미지는 우주의 연속성에서, 이미지들의 총체로서 물질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 절단으로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일단 성립되면 이 신체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구는 다른 물체들을 구성하는데 이르게 된다. 이런 이미지의 한정과 고정은 이미 1장 “이미지의 선택”에서 예고되었다. 어떤 이미지들이 내 신체라는 이미지의 가능적 행동이라는 기준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내 가능적 행동들이라는 것이 생명체로서 신체를 보존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이미지들을 행동의 관점에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선택과 동시에 그 이미지들을 전체에서 절단하고, 그것이 가진 운동성을 고정시키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이 시사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내게 주어지는 이미지들 사이에 “전적으로 특별한 이러한 관계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62)</sup> 즉, 우리의 삶은 절대적 운동 속에서 물체들을 고립시키고 부동성을 부여한 다음 등질적 운동으로 절대적 운동이라는 모든 주어지는 것의 근본적 성질에서 운동성의 외피만을 보존하려 한다. 이 점이 해명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미지들을 한정하고 고정하기 이전에 그에 우선하는 실재적 운동의 차원을 드러낼 다음의 명제로 넘어갈 수 있다.

---

61)같은 책, p.331.

62)같은 책, p.332.



#### 4-4 실재적 운동 - “우주적 변형”으로서의 운동

“IV. 실재적 운동은 한 사물의 이동이라기보다는 한 상태의 이동이다.”

베르그손은 이 명제를 제시한 후 이 명제와 지금까지 세 명제가 정식화 될 때 어떤 함축들이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는 사실 단지 사람들이 서로 대립시킨 두 항들, 즉 성질이나 감각 그리고 운동 사이의 간격을 점진적으로 다시 좁혔을 뿐이다. 처음에 그 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성질은 서로간에 이질적이고, 운동은 동질적이다. 본질상 불가분적인 감각은 측정을 벗어난다. 언제나 가분적인 운동은 방향과 속도의 계산가능한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sup>63)</sup>

여기서 베르그손의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 두 항이 대립되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미지로 정의되는 베르그손이 제시한 지각이 아닌,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각한다는 말을 쓸 때 상황을 떠올려보자. 즉, 상식적 시각에서 상황을 관찰해 보자. 손으로 권야구공을 지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손은 야구공의 딱딱함과 감촉, 실밥과 실밥이 없는 표면의 질감 차이를 알려준다. 시각은 야구공의 흰 표면과, 둥근 형태 실밥의 무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야구공은 딱딱함, 둥근 모양, 흰 표면 등의 속성을 담지하는 하나의 물체로 나에게 지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야구공을 멀리 던져보자. 나는 야구공의 움직임 또한 지각한다. 그것은 움직이면서 어떤 궤적으로 나에게 보인다. 이 운동을 나는 야구공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 위치변화의 도중에 나는 내 손에 쥐고 있었을 때 야구공의 성질이 그 움직이는 야구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야구공을 충분히 빠르게 던질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야구공의 운동을 통해 내가

---

63)같은 책, p.338.

지각할 것들은 그 운동이 충분히 빠를수록 내 손에 쥐고 그것을 볼 때의 지각과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한다. 이제, 그 운동은 거의 이동의 궤적이 마치 그 궤적이 지나는 모든 공간을 점유하는 하나의 입체, 사물처럼 내게 보이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일상적 태도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비록 야구공의 운동이 내게 그것이 정지할 때와 전혀 다른, 하나의 궤적으로 내게 보여 내 손에 야구공이 있을 때와 다르게 지각되더라도 그 운동의 궤적 안에 야구공이 있으며 그 궤적이 차지하는 공간 전체에 야구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 순간 야구공은 그 궤적안의 한 위치에만 있는 것이며 그 한 위치에 있을 때의 야구공은 내가 손에 야구공을 쥐고 있을 때의 야구공과 동일한 야구공이고 그러므로 동일한 성질을 지닌다. 그리고 이런 야구공의 운동을 우리는 역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야구공이 이동한 궤적의 길이와 운동한 시간을 측정하면 야구공의 운동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베르그손이 무엇을 대립시키는지 더 쉽게 따라가 볼 수 있다. 야구공을 쥔 상태에서 야구공의 색과 촉각은 그 자체가 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손으로 쥔 상태에서 보고 있는 야구공의 흰색은 다른 물체들이 가진 색과 곧바로 구분된다. 쥐고 있을 때의 촉감은 그것을 쥐고 있지 않을 때와 곧바로 구분되고 야구공의 매끈한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그 위에 새겨진 실밥의 촉감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또, 이런 감각은 불가분적이다. 그 촉감과 색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다른 부분적 요소의 조합으로 그것을 이루게 될, 그런 부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질은 “본질상 불가분적인 감각은 측정을 벗어난다”는 것과 “서로 간에 이질적”이라는 말의 의미다.

우리는 운동하는 야구공에 대해 손에 쥔 야구공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

한다. 더 이상 그 야구공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속성들과 그 담지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운동 중인 야구공이 입의의 순간에 멈춘다면 손에 쥔 야구공과 같은 것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운동하는 야구공이 정지한 야구공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지한 야구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성들의 담지체로서 야구공을 생각하듯, 야구공의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 담지체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속성은 공간 속에서의 위치 변화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치 변화 이외에는 모든 것이 정지했을 때와 동일한 것이라 본다는 점에서 이 야구공의 운동을 베르그손의 말을 빌려 “등질적 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두 항 각각을 두고, 우리는 야구공이 손안에 있을 때 지각에 주어지는 속성들을 “감각의 형태로 의식에 놓기를 좋아한다.” 이와 반대로,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속성들을 모아 담지하는 물체의 위치변화로 이해되는 등질적 운동은 공간 속에 있으며 우리의 의식 바깥의 독립적인 것으로 여긴다. 전자는 비연장적이고 후자는 연장적이다. 전자는 절대적 질이며 후자는 기하학적인 공간 안에는 상대적인 운동임과 동시에 데카르트처럼 대수와 기하를 결합해서 생각한다면 순수한 양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각에서 이들은 결합되어 있다. 이 서로 대치되는 두 항의 어떤 관련이 우리의 통합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가?

베르그손은 이 두 항의 차이를 날카롭게 간직한 채로 그 종합을 시도하려는 주장의 개요를 간략하게 비판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는 주장은 등질적 운동과 그것의 양적 성질로(그러므로 의식 외적이고 공간적인) 의식의 질적 감각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을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러나 운동을 접촉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은 어떤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그것들을 감각으로 번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은 공간 속에 투사되어 자신들이 번역하는 운동을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뒤엎으려 올 것이다. 거기서부터 어떤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달리 소통할 수 없는, 두 상이한 세계가 비롯되는데,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공간 속의 운동의 세계이고, 다른 편으로는 감각을 갖는 의식이다.”<sup>64)</sup>

“의식은 어떤 신비로운 과정에 의해서 그것을 감각들로 번역할 것이고”라는 구절이 이 주장에 대해 베르그손이 비판하는 핵심이다. 이미 이미지의 선택을 다룬 1장에서 저 “번역”이 표상을 통해 이뤄진다는 주장의 귀결을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서로 다른 두 항의 종합은 뇌의 표상작용에 근거하게 된다. 즉, 공간 상의 운동이 공간 상에 있는 뇌의 운동을 자극하며 그 뇌의 운동이 표상을 창조한다는 주장과 연결되게 된다. 이 주장을 따른다면 이 창조된 표상은 그것을 창조했다고 주장되는 뇌의 물질적 운동과 그 운동을 자극한 동질적 운동과 다른 것이 된다. 이렇게 전혀 서로 간에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사이에 후자가 전자를 만들어 낸다는 주장을 베르그손은 1장에서 “마법 지팡이”같은 표현과 함께 비판했으며 그 비판은 여기서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표현과 함께 반복된다.

이렇게 소통될 수 없게 설정된 두 항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제시된 네 명제로 이 두 항이 대립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가? 베르그손은 위의 유물론적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을 택한다. 그러나 그것이 영국 경험론의 입장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베르그손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성질을 감각의 형태로 의식에 놓는”, 그런 의식적 요소로 등질적 운동과 그런 운동이 가능할 공간 관념이 우리의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등질적 운동에서 질적 요소를 살려내고 순수한 질로 여겨지는 의식의 감각이 지닌 연장성(등질적 운동이 전제하는 연장과도 다른) 또한 복구함으로써 우리의 지각이 지닌

---

64)같은 책, p.338.

본래성을 살려내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보이게 한다. 그 과정에서 왜 운동에 대한 네 명제가 등장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4-5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

이 과정은 이중적이다. 순수하게 양적으로 동질적인 운동이 이해되는 이유는 그 운동에서 양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요소만으로 의식 외부의 운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양적인 환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운동이 데카르트가 창안한 해석 기하학에서 다루는 공간 아래의 연장성을 통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베르그손이 운동에 대해 제시한 네 명제를 종합해 운동을 등질적이기도, 순수 공간과 그에서 비롯되는 연장성에 기초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운동은 그 자체로 불가분적이고 절대적인 운동이 있다는 두 명제로부터 우리는 외부의 등질적 운동에 대해, 그것이 공간 아래의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운동일 수밖에 없다고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떠올릴 필요가 생겼다. 절대적인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연장 아래 위치 이동으로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봐야한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의 등질적 운동에서 다른 변화를 보지 않고 위치 변화만을 보았던 것은 운동에서 운동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 운동하는 것이 운동의 궤적 아래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면 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운동을 불가분적으로 여긴다면 어떤 고정된 속성을 갖고 그것의 담지체로서 불변하는 운동하는 것이 운동 중 동일한 것으로 유지될 거라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또, 운동에서 운동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운동하는 것을 특정할 경우 생기는 운동하는 것이 운동하는 것인지 그 운동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다른 것이 운동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대적 운동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운동을 절대적인 것으로 놓기 위해 운동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사물의 전체에서 특정하게 고정, 한정 시키는지, 왜 그렇게 한정, 고정

시킴으로서 운동에서 운동하는 것을 따로 설정하게 되는지, 왜 물질을 독립적인 물체로 분할하는 것이 인위적인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의식 외부의 운동을 더 이상 연장적이고 등질적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식 내부의 질적인 속성과 그 속성의 의식적 등가물인 비연장적인 감각과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다. 의식 외부의 운동을 양적인 등질적 운동이 아닌 절대적 운동으로서 질적인 것으로 놓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연장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의식적인 것이라 비연장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질적 속성들이 가진 순수 질적, 비연장적 측면을 약화시켜 의식 외부의 운동과 조화시킬 차례다.

이 질적인 속성들은 일단 우리에게 고정된 것으로 지각된다. 야구공의 흰색을 떠올려보자. 그 흰 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보면 일단 그 색이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베르그손은 그 흰 색이라는 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 지각된 두 색의 환원 불가능성이 특히 우리 의식의 한순간에 행사되는 수조의 파동들이 응축되어 있는 짧은 지속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만일 이 지속을 잡아 늘일 수 있다면, 즉 그것을 더욱 느린 리듬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리듬이 늦추어짐에 따라 색깔들이 연해지고, 아직 색이 있다 하더라도 잇따르는 인상들로 늘어지면서, 그러나 점점 더 순수한 진동들과 섞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sup>65)</sup>

이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가 제시하는 “지속을 잡아 늘일 수 있다면, 즉 그것을 더욱 느린 리듬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이라는 말로 듣기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

65)같은 책, p.339.

조건을 동영상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 현대의 동영상 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지각하는 운동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운동의 리듬, 속도도 재생속도를 빠르고 느리게 함으로써 베르그손이 제시하는 저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일단 베르그손의 말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색이라는 속성이 "수조의 파동들이 응축되어 있는 짧은 지속"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꼭 색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들 전부다 이런 짧은 지속을 순간적으로 응축한 것이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가진 일상적 지각의 리듬, 일상적 삶이 가진 리듬을 가속하거나 감속시킬 경우의 이미지를 동영상 기술은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청각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의 일상적 대화를 녹음한다고 가정해보자. 녹음기는 일단 우리의 자연적 리듬으로 그 소리들을 녹음할 것이다. 일단 녹음이 된다면 기술은 그 리듬을 느리게 늘이거나 빠르게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학 학습기능이 들어간 녹음기의 경우, 외국어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천천히 느리게 재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경우 그 느린 정도는 느리기 때문에 재생되는 대화가 원래 속도의 대화보다 우리에게 다른 질적 인상을 주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일 수 있다. 그런 기능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듣는 사람에게 대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말하는 것을 들으려는 우리의 의도가 그 기능의 기원이다. 반대로 빠른 속도로 재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그 빠른 대화가 원래 대화와 다른 질적 인상을 주더라도 여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원래 속도와 같은 시간을 듣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그 청각적 대화에서 얻으려는 우리의 의도가 그런 기능의 기원일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가 재생되는 대화를 들을 때 그 소리들은 언

어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거나 느리게 재생한다면 그 소리는 무엇이 되는가. 5분짜리 대화를 녹음해서 1초만에 재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마 우리는 심심풀이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을 통해 그렇게 해볼 이유가 없다. 즉, 우리에게 실용적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대화는 5분짜리 대화를 5분 동안 재생했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과 달리 전혀 어떤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어떤 질적 인상은 준다. 즉, 1초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들리긴 들린다. 그런데 그 1초 동안의 소리란 5분 간의 대화가 구성할 모든 소리와 완전히 다른 지각이 된다.

반대로 5분짜리 대화를 25시간동안 느리게 재생한다고 해보자. 어떤 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소리와 소리 사이의 공백도 아주 길게 늘어질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지만 25시간 동안 잠들지 않은 채 계속 그것이 주는 청각적 이미지를 듣고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것 역시 5분간의 원래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청각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즉, 일정한 지속을 점유하는 이미지들의 리듬에 따라 우리는 각기 다른 지각을 갖게 된다. 청각적 이미지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시각적 이미지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제가 되는 시각의 질로서 색도 그러할 것이다.

베르그손은 색으로 주어지는 질을 느린 리듬으로 지각해보기를 제안해 보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그 움직임에 따라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빠르기를 가진 운동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후 그것을 극단적으로 빠르게 재생시켜 볼 때 어떻게 될지 역으로 생각해보자.

선풍기의 날개를 예로 들어보자.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선풍기의 날개는 정지된 상태에서는 분명 지각되는 날개 사이의 틈이 없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런데 충분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선풍기의 날개는 정지된 상태와 확실히 다른 질적인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 만일 선풍기 날개가 정지된 것을 본 적이 없고 빠르게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선풍기 날개의 회전 운동은 그것이 하나의 원과 같은 사물로 보이지 않겠는가? 만일 그 회전 속도를 점점 늦춰가며 충분히 날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느린 속도까지 이르는 운동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그는 서서히 그것이 정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 운동 배후에 날개가 있으며 그 날개의 모습은 그 날개가 빠르게 움직일 때와 다른 사물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베르그손이 “지속을 잡아 늘일 수 있다면, 즉 그것을 더욱 느린 리듬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선풍기의 예에서 선풍기 날개의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겠다. 우리에게 부동적인 질로 보이는 것을, 선풍기가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 선풍기 날개의 운동이 원과 같은 고정된 사물처럼 보이는 상태와 비교 하고, 그 부동적인 질을 느린 리듬으로 살려내는 것을 그 선풍기의 운동이 느려졌을 때 선풍기 날개의 본래 모습이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선풍기의 날개 속도, 날개의 운동하는 리듬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리듬이다. 그러나 부동적인 질이 그 심층에서는 우리가 그 운동을 알아채기에 너무 빠른 운동, 진동이라 할 때 우리가 그 운동을 처리하는 지각의 리듬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 베르그손이 설명하는 대로 색을 진동으로, 우리의 의식이 한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운동들의 응축으로 본다면, 부동적인 질로서 색이란 그 안의 무수한 운동을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응축시켜 고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우리 신체가 이미지의 전체인 우주 안에서 갖는 자신의 행동의 리듬에서 기원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을 부동적인 것으로 보고 우리의 의식 안에 놓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 의식 외부의 운동은 그 자체로 등질적이지 않고 질적이며 우리가 의식의 형태로 파악한다고 생각하는 질, 감각은 외부의 운동들 중 우리의 신체라는 이미지가 그 운동이

변화하는 것을 모두 쫓아가며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운동들을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로서 선택함과 동시에 고정된 것이 된다. 즉, 비연장적이며 질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감각은 그 기원이 신체라는 이미지의 표상작용이 아닌 신체 외부 이미지들의 운동에 있다.

#### 4-6 실재적 운동과 이원론 문제의 해소

그렇다면 연장 실체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비연장적인 인상과 관념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이미지도 아직 선택, 고정, 한정되지 않았기에 아닌, 운동에 대한 위의 네 명제를 받아들일 때 드러나는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 베르그손은 직접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나의 의식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물질적 우주는 본래대로 존속한다. 단지 당신이 사물들에 대한 나의 행동의 조건이었던 지속의 이 특별한 리듬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 사물들은 과학이 구분하는 그만큼의 순간들로 분절되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감각적 성질들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분할된 어떤 지속 안에서 펼쳐지고 용해된다. 이처럼 물질은 모든 것이 중단 없는 연속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연대적인 수없는 진동들로 용해되는데, 이 진동들은 그만큼의 떨림들처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 한마디로 당신의 일상적 경험의 불연속적 대상들을 서로 연결해 보라. 그 다음에는 그것들의 성질들의 부동적 연속성을 곧바로 진동들로 용해해 보라. 이 운동들의 운동성만을 고려하기 위해 이 운동들 아래 놓여 있는 가분적 공간에서 벗어나서, 당신 자신이 행사하는 운동들 속에서 당신의 의식이 파악하는 이 불가분적 행동을 이 운동들에 밀착시켜 보라. 당신은 삶의 요구들에 의해 당신이 외적지각에서 물질에 참가한 것을 제거하고, 아마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물질의 순수하게 된 외양을 얻게 될 것이다.”<sup>66)</sup>

---

66)같은 책, p.348.

이 구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묘사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들과 몇 개의 규칙을 가지고 지적(知的)으로 재구성한 세계에 대한 묘사는 아니다. 일단 여기서 묘사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익숙한 지각의 세계를 위에 묘사된 세계와 대조하며 서술한 다음의 묘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제 나의 의식을 회복하여, 그것과 함께 삶의 요구들을 복구해 보라. 그러면 아주 이따금씩, 그리고 매번 사물들의 내적인 역사의 막대한 기간들을 뛰어넘으면서, 거의 순간적이고 이번에는 그림 같은 외관들이 취해질 것이다. 그것들의 더욱 분명한 색들도 무한한 반복들과 무한한 요소적인 변화들을 응축한다. 달리는 사람의 수천의 잇따르는 위치들이 유일한 상징적 태도로 응축되어 우리 눈에 지각되고, 예술에 의해 재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달리는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것은 그와 같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간간이 던지는 시선은 단지 무수한 반복들과 내적인 진화들의 결과들만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자체에 의해 이 결과들은 불연속적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공간 속의 <대상들>에 부여하는 상대적 운동들에 의해서 회복한다.”<sup>67)</sup>

이 두 인용문이 각기 묘사하고 있는 두 세계의 차이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 되는 원리는 신체 이미지의 행동에 있다. 더 자세히는 이미지의 총체로 정의된 물질과 그 물질 전체에서 특이한 이미지로 삽입되어있는 신체 이미지의 행동의 필요로 인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신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리듬이 그 원리다. 좀 더 실증적이고 정밀하게 베르그손이 인용하는 대로는 인간의 신체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으로서의 2/1000초다.<sup>68)</sup> 전자의 세계는 이

---

67) 같은 책, pp.348~349.

68) “그런데 엑스너Exner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하는 텅 빈 시간의 가장 짧은 간격은 천분이 이 (2/1000)초와 동등하다고 한다.” 같은 책, p.343.

2/1000초를 넘어서는 “우주적인 변형”의 세계다. 그렇다면 후자의 세계는 이런 연속적이며 아무리 짧은 순간에도 2/1000초의 스케일을 넘어서 변화하고 있는 우주를 2/1000초를 단위로 그 변화를 불연속적으로 잘라냄과 동시에 그 불연속성을 다시 이어 연속성을 살려내는(“공간 속의 <대상들>에 부여하는 상대적 운동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 지각의 세계가 된다.

우리에게 비연장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질적 인상들의 부동성은 2/1000초 안에도 변형되고 있는 우주의 그 모든 변천과정 전체를 순간적으로 응축시키는데 기원한다. 또, 이런 항상 변하고 있는 우주에서 한 사물을 연장적인 공간 안에 고립된 물체로 그 테두리를 한정시키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아닌 운동이 그 운동의 효과를 2/1000초를 단위로 한정시키는 결과로 우리에게 한 고립된 물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연장과 연장의 구분은 중화된다. 비연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실상 우리 외부의 운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응축시켜야 하는 우리의 필요가 만들어낸 효과다. 반대로 우리가 순수한 연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취급할 때 위치 변화만을 제외하고 모두 배제시킨 질들은 우리가 2/1000초를 응축시켜 얻는 질과는 다른 그 자체의 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연장은 의식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의식과 연장을 구분하는 원리로 설정했던 것이 무엇인가? 연장은 상호외재성을 갖는다. 그리고 전체에서 한 부분을 분할 가능하다. 그러나 의식은 분할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상호침투적인 하나의 전체적인 시각장과도 같다. 이제 절대적인 운동과 운동의 분할 불가능성은 우리가 우주를 분할하여 지각하는 것이 인위적임을 보여주었고, 우주는 항상 그 부분들이 분할 불가능한 전체로서 항상 변화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우주에서 의식으로 바꿔보라. 정확하게 의식의 특징에 대한 진술이 된다.

이를 좀 더 부연해 보겠다. 우리는 흔히 넓고 광대한 공간적 우주 안에 티끌처럼 작은 지구라는 한 행성에서 다시 그 행성에서도 티끌 같은 크기를 지닌 신체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토대는 우리 자신의 신체 또한 물체와 같은 속성을 갖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신체가 다른 물체와 구분되며, 물체는 서로 불가침투적이기 때문에 한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에 다른 물체가 갖는 공간이 상호외재적으로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사고 방식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신체는 이런 신체의 외부에 공간 안에 배열되는 모든 사물들을 지각한다. 이 지각은 의식을 통해 가능하며 이렇게 외부를 지각하는 의식은 그 의식을 이를 요소들 서로서로가 상호외재적이지 않고 상호내재적이며 불가침투적이지 않고 상호침투적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에 대한 위의 네 명제를 통해 우리가 다다른 결론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물체를 부동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물체의 부동성은 운동, 저 머나먼 우주의 끝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끝과도 무관하지 않고, 의식이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침투적이듯 그 끝의 운동과도 서로 침투될 전 우주적 변형을 신체가 갖는 생명으로서 살기 위해 해야하는 행동과 그 행동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응축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 안의 개별적 사물들의 경계를 철폐한 것이며 그 경계를 철폐함으로써 그 경계를 확정할 공간 또한 철폐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우주를 거대한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대한 운동에서 부분은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나뉘지는 부분들은 더 이상 상호외재적이지 않으며 불가침투적이지도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물질과 정신이 연장을 통해 갈라졌던 구분 또한 철폐되는 셈이다.

#### 4-7 운동의 우선성에 대한 의문

지금 이런 진술들이 가능하기 위해, 베르그손은 마치 사실을 진술하듯 운동에 대한 네 명제를 진술했지만 그 진술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운동의 정지에 대한 우선성이다. 위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의문에 부딪힌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체 이전에 운동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은 운동하는 것이 없는 운동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이 고정되고 한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 하지 일단 그 물체가 없이는 운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즉, 운동자 없는 운동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운동에 대한 베르그손의 네 명제를 독해하다보면 항상 부딪히게 되고, 그의 명제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이런 평범한 상식적 의문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어떤 절대적으로 빠른 운동이 있다고 하자. 이 운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각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적 지각에서도 우리의 신체적 삶의 리듬보다 너무나 빠른 운동은 그 자체가 한 운동자가 아니라 운동 전체가 하나의 고정적 사물처럼 지각될 때가 있다. 그렇다면 고정적인 물체나 그것을 구성할 입자 이전에 운동이 먼저 있으며 그 운동이 물체나 입자를 효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 상식의 입장을 취해 물체가 먼저 있고 그것이 운동한다고 받아들여보자. 그런데 만일 그런 물체가 가진 운동의 리듬을 극대화시켜봤을 때 그 운동의 궤적 자체가 또 다른 물체처럼 지각되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운동이 물체가 갖는 부동성과 동일성을 구성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물체 없는 운동이 있을 수 있음을 조금은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 이전의 주저에서 예로 드는 것처럼<sup>69)</sup> 별똥별

---

69)“(…)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극도로 빠른 그 운동 속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나간 공간과, 운동 또는 운동성의 절대적으로 불가분적인 감각 사이의 분할이 저절로 일어난다.” 앙리 베르그손, 최화(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2001), p.144.

은 항상 그것의 운동 전체가 꼬리를 남기며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과는 다르게 지각된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우리가 가장 짧은 순간으로 지각할 수 있는 시간은  $2/1000$ 초임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가상의 사유 실험을 해보자. 어떤 사람이 초인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1/1000$ 초 사이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나는 그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내 앞의 장소에서 100Km 떨어진 곳을 1번 왕복하고 다시 내 앞에 섰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은  $2/1000$ 초다. 이런 한계를 가진 나에게  $2/1000$ 초 사이에 100Km 밖의 거리를 왕복할 수 있는 이 초인은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가,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가? 물론 움직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수도 있다. 100Km를  $1/1000$ 초만에 주파하는 것은 아무리 초인이라도 신체적으로 피로한 일이며, 아마도 그가 움직였다면 적어도 그의 숨의 험떡거림으로 우리는 그가 운동했음을 알 수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운동을 시작하고 마친  $2/1000$ 초가 지난 그 시점에 내 앞에 있음을 지각하는 것과 별개로, 그의  $2/1000$ 초 동안의 100km를 움직이는 운동은 내게 어떻게 지각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운동을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자. 즉, 그가 무한한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똑같이 100Km를 왕복하고 내 앞에 서 있다고 해보자. 이 때, 그가 100Km를 왕복한 궤적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무한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그가 운동을 마치고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된다. 즉, 내 앞으로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100Km를 운동하는 궤적 전체를 하나의 부피를 차지하는 사물처럼 나는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사물의 예를 생각해보자. 일정한 간격 사이에서 직선으로 왕복운동을 하는 큰 공을 떠올려 보자. 그런데 이 공이 왕복운동을 하는 속력이 무한이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 수 있다. 베르그손의 질이 갖는 고정성에

대한 설명을 참조한다면 이 공의 왕복운동의 궤적은 우리에게 그 궤적 전체가 하나의 사물처럼 지각될 것이다. 즉, 무한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의 궤적은 그 궤적이 하나의 사물이 된다.<sup>70)</sup>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물체들의 부동성이 그 심층에서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속도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의 속력까지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베르그손이 인용을 통해, 우리가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제시하는 2/1000초를 넘어서는 속도의 운동이 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심층적 운동성에서 물체가 갖는 부동성을 구성해 낼 것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도시의 전경이 잘 보이는, 특히 도로와 차량 이동이 가장 잘 보일 높은 곳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10일 정도 계속 촬영을 해보자. 그리고 그 10일치의 영상을 1분 안에 재생시켜보자. 여기서 차도는 어떻게 지각되는가? 무수한 개별적 차들의 운동은, 원래 10일이라는 시간의 리듬으로 재생시켜본다면 우리에게 각각의 윤곽이 뚜렷하며 그것의 이동도 그 윤곽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지각된다. 그런데 이것을 1분 안에 끝나도록 빠르게 재생한다면 그 차들의 개별적 윤곽은 사라지고, 모든 차들의 개별성도 사라지며 차도 위에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그 운동성은 느껴지지만 한 거대한 유동적 액체처럼 지각된다. 만일 그 리듬을 더 빠르게, 10분을 다시 1분으로, 1분을 다시 1초로 재생한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차량의 흐름을 그저 하나의 물체처럼 지각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물체로 느껴지게 되는 정도는 그 1초를 다시 0.5초로, 다시 0.5초를 2/1000로 할수록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개연적인 사고 실험으로만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생명체라는

---

70) 무한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한 물체가 직선의 궤적으로 궤적의 양 끝 AB를 왕복 운동한다고 해보자. 무한한 속력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개념상 그 물체는 궤적 AB의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 궤적 AB는 우리가 물체에 부여하는 부피와 같은 성질을 지닐 것이다. 즉, 운동하는 그 물체는 운동자의 한계를 넘어서 그 무한한 속도의 운동과 함께 또 다른 물체가 된다.



점에서 같은 결론을 연역해보자. 베르그손이 지적하는 대로 우리의 능력은 순수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위해 아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1/1000초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는 초인을 우리가 대할 때 그가 1/1000초에 100km를 왕복하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던 전혀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쓰지 않고 그냥 내 앞에 2/1000초 동안 계속 있었던 내 실용적인 관심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2/1000초 동안에도 끊임없으며 실로 우주 자신의 입장에서는 인류사 몇 만 년과 맞먹을지도 모르는 천지개벽과 같을 무수한 사건도 2/1000초라는 행동과 지각의 리듬을 가진 생명체로서 내 입장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과 취급해도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변화도 없는 동일한 것으로 지각되는 일상의 물체들도 그 변화 없음은 심층에서 우리의 신체 이미지가 처리할 수 없는 빠른 속도의 운동들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낸다고 해도 운동이 먼저인지 정지가 먼저인지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철학사의 시초에 플라톤은 『소피스테스』 편에서 이 문제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신과 거인족의 거대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운동하는 것 이전에 운동이 있으며 운동의 효과로 운동하는 것과 더 나아가 고정적인 물체가 우리에게 지각된다는 베르그손이 다시 헤라클레이토스 진영의 첩병으로 운동의 우선성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어떤 상대적 이점을 갖는지 정도는 평가해 볼 수 있다.

#### 4-8 실재적 운동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의 한정과 고정

이렇게 정지보다 운동을 먼저 놓고 그러므로 고정된 물체를 배후의 운동의 효과로 생각한다면 물질은 더 이상 입자로 떠올릴 필요가 없으며 연장을 그것의 본질로 상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연장 또한 운동의 효과가 된다. 데카르트가 의식 외부의 사물들을 연장성이라는 본질로 총괄하

고 실체로 설정할 때, 실체라는 용어의 의미가 의미하듯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베르그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근본적인지, 정말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잘 관찰했을 때 그러한지 의문을 던진다. 이미 어떤 입장에서 베르그손이 직접적인 것들을 관찰하는지는 지금의 운동에 대한 그의 네 명제를 살펴보면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관찰의 결과는 왜 우리는 물질을 생각할 때 연장을 그 본질로 생각하게 되는지 이유도 알려줄 수 있다.

먼저 이미지는 선택된다. 이미지 개념이 도입될 때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지로 설정했을 때 신체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다른 독특한 이미지다. 살아있는 생물로서 신체 이미지는 자신을 존속시키기 위해 여러 필요를 갖는다.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들 사이의 모든 작용에서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이미지들의 작용을 걸러내야 한다. 생명으로서 삶의 필요가 이미지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삶의 필요는 이미지를 선택하는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신체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우주는, 운동에 대해 베르그손이 비판한 귀결대로, 부동적인 입자가 모여 이루는 물체들의 총체와 그 물체들의 위치를 지정할 공간이 아니다. 우주는 쉼 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조차도 넘어서는 변화다. 이런 변화의 세계에서 행동은 부동성을 요구한다. 행동이 부동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신체 이미지가 생명체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 또한 부동성이라는 말이며 그 부동성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빠른 리듬의 우주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으로 응축시키는 데에서 구체화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물들에 대한 질적 인상들을 얻는다. 이 질적 인상들의 양적이고 등질적 운동과 확연히 구분되는 상대적 안정성은 이 사실에서 연유한다. 이런 부동성은 우리가 “우주적 변형”의 세계에서 개별적인 물체의 세계로 첫걸음을 댈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미지의 선택을 결정하는 원리는 곧 이미지의 고정을 결정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다.

동시에 “나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은 그것들에 대한 내 신체의  
 가능적 행동을 반영한다.”<sup>71)</sup>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는 곧 한정되어야 한  
 다. 그 한정의 원리 또한 우리의 행동의 필요에 있다. 어떤 행동과 관련  
 된 사물이 있다면 신체 이미지는 그 사물을 자신의 가능적 행동을 기준  
 으로 처리한다. 거기서 내 신체는 모든 것에 동일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사물들에 대한 각기 다른 “나의 신체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능력들”<sup>72)</sup>  
 은 그 시간의 측면에서 고정된 사물들을 공간적 측면에서 배열한다. 그  
 령다면 이런 이미지의 한정을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경계란 우리의 생명  
 적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우주적 변형”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미지를 선택, 고정, 한  
 정<sup>73)</sup>하여 우리의 일상에 익숙한 지각의 세계에 진입한다. 이미지가 선택,  
 고정, 한정되기 전의 세계는 아직 연장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르그손은 그 세계가 “중화된 의식”<sup>74)</sup>과도 같다고 표현  
 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정신과 물질을 연장이라는 속성에 의지하지 않  
 고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지  
 의 한정을 다루면서 우리는 생명이 가진 행동의 필요에 의해 도출되는  
 신체의 증가, 혹은 감소하는 능력들에 따라 사물들이 고정되며 배열됨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의 세계는 공간이라는 그물을 던짐으로써 걸  
 러낼 수 있는 여지를 드러낸다.<sup>75)</sup>

71)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44.

72) 같은 쪽.

73) 이 이미지에 대한 신체 이미지의 세 기능은 신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갖는 행동의 필요라는 동  
 일한 원리에서 기원하는 만큼 선후가 없는 관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74) “우리는 이 자연이 하나의 중화된 의식으로, 따라서 잠재적인 의식으로, 그것이 우발적인 현시  
 들이 서로 상충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려는 정확한 순간에 무화되는 의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책, p.407.

75) “그러나 실재를 이처럼 분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실체가 임의적으로 분할가능하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 연장인 감각적 성질들의 연속성 아래 무한히 변형가능  
 하고, 무한히 줄어들 수 있는 그물망을 깔아 놓아야만 한다. 이렇게 단순히 사유된 기체, 임의  
 적이고 무한한 분할의 이상적인 도식이 바로 동질적 공간이다.” 같은 책, p.350.

그러나 물체가 운동의 효과라는 베르그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물질의 본질적 속성은 더 이상 연장이 아니다. 연장을 가진 사물들이 공간 안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주장은 그렇게 있는 사물들이 정지해서 놓여 있음 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동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일하게 인정되는 운동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등질적 운동, 공간 상의 위치변화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상의 위치변화와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공통적인 것이 발견될 수 없는 공간 아래의 사건이 아닌 심리적인 사건들은 그 관련을 제시하기가 어렵게 된다. 가능한 것은 뇌 밖에 우주 안의 입자들의 공간이동과 뇌를 이루는 입자들이(이 둘 모두 공간상의 위치이동이다) 전혀 그것이 갖지 못하는 속성을 지닌 감각이나 지각을 표상으로 창조한다는, 실용적으로,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유력하긴 하지만,<sup>76)</sup> 신비에 가까운 설명밖에 남지 않는다.

#### 4-9 이미지의 고정과 한정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적 연장으로로서의 “확장(Extension)” 개념

그러나 그렇다고 연장이라는 개념이 베르그손의 입장에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으로서의 연장이 아닌, 신체 이미지가 갖는 행동의 필요로 인해 표시될 필요가 있는, 행동의 가능성의 증감이 가리키는 거리는 적어도 등질적 공간과 연장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절대적인 불가침투성과 상호외재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거리라는 생명이 자신의 외부를 처리하는데 여전히 초월론적(transcendental) 기준이라 불러도 별 무리가 없는 요소는 이미지가 선택, 고정, 한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이미지의 총체가 물질이라고 할 때 여전히 유효한 요소가 된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약간만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분명 우리는 한 물체를 다른 물체와 구별한다. 그리고 연장을 통해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무한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일상에서

<sup>76)</sup>여전히 뇌수의 물질적 변화를 공학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물질성을 무한 분할이라는 성질만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즉, 물질성을 나의 신체와 나를 위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지 그것이 등질적인 공간 아래서 연장성을 갖고 있음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만일 어떤 물체가 분할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 분할에 따른 기능과 관련된 정도에 그치지 순수공간의 도식을 통한 무한 분할은 우리의 실천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아직 순수공간의 도식이라는 그물망을 우리의 지각장 전체에 던지기 전의 지각은 1장에서 베르그손이 이미지의 선택을 설명하고자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이미지와 관련하여 정의했던 지각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 지각은 이미 한정과 고정을 거친 것이므로 우주적 변형의 영역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미 우리는 그 영역에서는 의식의 내, 외부 구분이 무의미한, 모든 것이 연장실체라고 우리의 외부를 표상했을 때와 다른 중화된 의식의 영역임을 살펴보았다. 만일 베르그손의 설명대로 순수공간의 도식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라면, 그 도구가 다른 모든 이미지들에 적용되고 탁월한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이미지의 총체로서 물질이 순수공간의 도식이라는 도구와 어떤 친연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게 해준다. 베르그손은 이 『물질과 기억』 이후의 저작인 『창조적 진화』의 3장에서 그러한 발생을 추적한다. 순수공간이라는 인간의 도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형성이 가능했던 우주의 조건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탐구를 완결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의 맥락에서는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

베르그손은 자신이 이미지를 통해 재정의한 정신과 물질을 4장의 서두에서 다시 언급한 후 이원론의 문제상황을 그런 재정의한 상황에 맞게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순수공간이 해석하는 우주와 순수한 운동의 우주의 사이에 확장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었다. 이 확장은 연장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불가침투성과 상호외재성, 그리고 등질적 공간이라는 특성을 조금씩 후퇴시킨 개념이 된다.

이미 우리는 운동에 대한 네 명제의 논의를 통해 실재적 운동이 있고 그 운동이 불가분적이라면, 그 운동은 상대적이지 않기 위해 그 운동의 주체로 여겨질 운동하는 것이 다른 것들과 분할되지 않아야 함을 보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체 간의 불가침투성이나, 상호외재성 또한 실재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서 이미지가 선택, 고정, 한정되어 등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불가침투성과 상호외재성과는 거리가 있는 물체로서 이미지가 된다. 이런 이미지들 사이와, 신체 이미지라는 특권적 이미지와 그와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는 그 특권적 이미지의 행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리라는 배열의 원리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거리라는 개념은 등질적 공간과 공유하는 특성을 갖기는 한다. 그러나 등질적 공간 아래 우리가 물체를 위치시킨다면 그 공간의 등질성 때문에 양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될 요소들은 이미지가 선택, 한정, 고정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등질적이지 않다. 순수 공간으로 이해된 세계에서 신체 이미지와 다른 물체 사이의 거리와 신체 이미지의 행동의 측면에서 배열된 어떤 이미지와의 거리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등질적 공간은 이미 그 공간 안의 사물들 사이에 상호외재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상호외재성 또한 이미지가 선택, 한정, 제한된 지각으로 드러낼 때, 그런 지각의 본질적 조건은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사유실체와 연장실체로 제기된 이원론에서 연장성이 사물에 적용되기 이전의, 연장보다 우선적인 실재적 운동의 영역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근본적인 두 실체의 구분으로 연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 이원론이 지각을 설명하기 위해 전제했던 연장실체의 본질적 속성인 연장은 그것이 다른 실체인 사유실체와의 소통을 방해했던 특성들을 잃은 채, 자연적 연장이라고 베르그손이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 확장으로 이해됨으로써 두 실체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

#### 4-10 이미지 개념의 근거로서 실재적 운동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실재적 운동 비판의 결론들은 우리가 위에서 이미지를 다루면서 제기했던 몇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준다. 우리가 이미 본 바에 따르면 이미지 개념은 물질, 지각, 관념 등을 이원론의 두 실체간의 소통을 가로막지 않는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조작적인 방식으로 설정된 개념이었다. 그런 개념에 베르그손이 부여하는 속성들이 이미지를 도입하기 위한 관찰에서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자신의 주장에 걸맞도록 부여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문제를 제기했었다.

첫째로, 이미지는 지각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문제였다. 비록 지각되지 않는 사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굳이 입증하는 것이 일상적인 태도에서는 불필요하더라도 엄밀한 인식론에서는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실재적이고 절대적인 운동이 있다면 개별적인 물체로 지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분할하는 것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개별적인 물체가 내가 지각하고 있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물체는 실재적 운동을 우리가 생명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필연성들이 선택, 한정, 고정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택, 한정, 고정 이전의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서는 내가 그 물체를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물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곧 내가 그 물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된다. 즉, 내 지각이 우주의 실재적 운동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내가 지각하고 있지 않은 사물은 그 존재가 지각하지 않음에도 있을 수 있게 된다. 실재적 운동은 전 우주를 포괄하며 그 우주 안의 특정한 물체의 지각은 그 물체 뿐 아니라 그 물체가 용해될 거대한 우주적 실재적 운동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 종속되는

가가 문제였다. 여기서도 이미지가 선택, 한정, 고정, 결과라는 실재적 운동 비판의 결론을 따라가면 이미지에 그런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임의적이지는 않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가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서 신체가 갖는 생명체로서의 요구라는 원리에 의해 선택, 고정, 한정됨으로써 등장한다면 그렇게 등장한 이미지의 체계에서 과학적이고 법칙적인 성질을 띠는 이미지의 총체로서의 우주라는 개념은 그 선택, 고정, 한정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지 이전의 실재적 운동의 영역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대 과학의 비약적 발전이 그 이전에는 그 연관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자연의 현상들 배후의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 수학적 원리를 설명의 원리로 놓았던 방법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미지의 체계가 서로 과학적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설정했던 것은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서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난 이미지의 전체에서 동질적 공간이라는 그물망이 던져진다는 사실에 그 근거가 있었다. 이 동질적 공간 개념의 형성은 인간이 진화적 생명체로서 갖는 지성이라는 능력과 관련되며 이에 대해 베르그손은 『창조적 진화』의 3장에서 그 형성과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물질과 기억』의 논의만으로도 이미지의 체계에 과학적 법칙성이라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이미지가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고정, 한정의 원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원리가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필연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인 지성과 그 지성도 무시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형성된 결과물임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7)</sup>

77) 이와 관련하여 베르그손주의에서 주요한 두 항을 Gouhier는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구분한다. “실재는 우리가 본 대로 운동, 변화, 지속과 같은 모든 다양한 방식과 그에 따른 이름을 갖는 생성이다. 운동의 궤적, 지성적인 변화에 대한 표상, 시계나 달력에서의 시간과 같은 공간화된 지속은 아님을 잘 이해하자. 실재에 대한 지각은 생물학과 인간 과학에 되어 가는 생성이란 직관을 도입한다.” 베르그손이 실재로 제시하는 것과 그 실재를 우리가 혼동하여 동일시하는 것의 이 대비를 통해 베르그손주의는 이런 오류를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재에 대해 접근하는 논의와 떼어지지 않는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enri Gouhier, *Bergson dans L'histoire de la Pensée Occidentale*, Paris:



또, 신체가 이런 결정적 이미지들의 체계에서 비결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난다는 관찰이 선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서 선택, 고정, 한정함의 결과로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신체 이미지 또한 다른 외적 이미지들과 공유하는 성질들이 있을 때 그런 성질의 기원은 신체 이미지 또한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서 선택, 고정, 한정된 것이 된다. 우리의 신체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과 같이 지각되고, 다른 이미지들과 같은 물질로서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런데 이런 물질성의 측면에서 신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이 동일한 이미지로 취급될 수 있다면, 필연적이지 않고 결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의 작용을 선택한다는 신체 이미지의 특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신체 이미지의 비결정적인 특성은 신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같이 선택, 한정, 고정된 이미지로서의 특성 뿐 아니라 실재적 운동의 특성 또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실재적 운동은 그 자체가 이미지의 총체로서 이해한 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물질의 특성인 불가침투성이나 상호외재성의 성질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의식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베르그손은 이미 의식의 영역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체계가 아닌 비결정성과 자유가 성립하는 영역임을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시론』에서 확립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런 영역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에 간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변형”으로서의 실재적 운동과 동연적일 수 있음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신체 이미지는 그 자신이 선택, 한정, 고정한 결과로서 이미지와 그 이미지 이전의 실재적 운동의 두 영역 모두에 걸쳐있는 특이한 이미지이며, 그런 특성에서 비결정성이라는 다른 이미지와 구분되는 성질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신체 이미지의 자기 자신을 실재적 운동에 대한 선택, 한정, 고정한 결과로서 드러냄과 동시에 그 자신 또한 실재적 운동의 영역에 속한 이중적 성질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는 생명성 일반에

---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89, p.39.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생명성과 물질성의 대비를 통해 이런 독특한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베르그손은 이후의 저작인 『창조적 진화』에서 탐구하고 있다.

셋째로, 표상이 의식의 속성일 뿐 아니라 이미 물질성 자체가 표상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베르그손이 이미지만으로 표상적 의식을 설명할 때의 함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만일 뇌가 표상의 기관이며, 외부의 물질적 작용을 우리가 그것에 관해 갖게 되는 표상을 떠올리도록 하는 기관이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표상과 그 표상이 되는 물질이라는 두 항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 두 항이 분리되면 그것의 일치와 어떻게 물질이 표상이 되는지에 대한 난문이 생기게 된다. 베르그손은 물질이 뇌의 작용을 통해 표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미지의 총체로 정의된 물질 전체에서 신체의 운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선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피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함축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미지로 정의된 물질성에 표상이 갖는 성질이라는 의식적 특성이 부여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물질의 근본적 성질로 여겨지는 불가침투성이나 상호 외재성이 실제적 운동의 견지에서 고려된다면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님을 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근거는 실제적 운동이 상대적인 운동이 아닌 절대적인 운동이라는데 있었다. 절대적 운동이 가능하려면 모든 운동이 상대적으로 취급될 때의 조건으로 전제된, 운동과 운동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물체의 개별성이 철폐되어야 했으며, 그 조건을 철폐함으로써 절대적인 운동을 통해 이해되는 물질은 우리가 기존에 물질의 근본적 속성으로 부여했던 성질들을 잃고 의식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물질에 의식적인 속성이 부여된다면 우리는 뇌가 표상의 기관이 아니며, 표상 작용이라는 것이 의식적 지각의 설명에 꼭 필요하다면 뇌가 아니라 뇌를 포함하는 물질성 일반에 이미 표상의 근거가 있다는 베르그손의 지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베르그손이 이원론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이원론의 두 항의 소통 가능성을 확보했는지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두 단계는 각각 이미지의 설정과 실재적 운동의 분석이었다. 그리고 이 두 단계에서 각각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전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식은 순수한 앎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기능에서 기원한다는 것과 실재적 운동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주 또한 정지없는 거대한 운동으로 이해해야 하며 운동이 정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들을 베르그손이 아무런 정당화 없이 교설로서 받아들일 것 요구하고 작업을 진척시킨 것은 아니다. 이 두 전제들은 그의 모든 저작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며 논증되고 있고, 베르그손 자신도 자신의 학설의 중추를 이를 주장인 만큼 그 정당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기억』의 성취만으로는 존재론에 있어 신과 거인족의 거대한 싸움을 완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물질과 기억』의 확실한 성취라면 위의 두 전제를 만일 받아들인다면 이원론에서 두 항의 소통 문제는 해소되며, 우리는 적어도 두 실체를 설정하면서도 그 둘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원론이 가능함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원론이 보여줄 우주의 모습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다르게 비춰질지 다음의 대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며 짙은 지구의 사진을 보내왔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표지로 사용한 그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보라.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았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의 총합,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적 교설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모든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의 스승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super star), 모든 최고 지도자들(supreme leaders), 우리 종의 역사 속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곳- 태양 빛 속에 늘어져 있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다.”<sup>78)</sup>

그럴 것이다. 데카르트는 연장 실체를 제시하고 물질적 세계를 연장이 갖는 속성으로 등질화하여 이 지구와 지구 너머의 우주 공간과 그 공간에 점처럼 위치를 갖는 별들까지도 동일한 속성 아래의 원리로 탐구될 수 있는 영역으로 설정했다. 그 뿐 아니라 대수를 기하와 결합함으로써 그 원리를 수학적 원리로 총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갔을 때 연장의 측면에서 지구는 위의 모든 것이 벌어지는 한 중심점으로 여겨진다. 그런 특정한 점을 거대한 우주의 먼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느껴지는 보편적 감정을 칼 세이건은 위와 같이 서술하며 그 감정은 강력하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점에서 삶을 산 존재들은 “모든 사냥꾼, 약탈자,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 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보이는 사물들이 내게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실재론자들이나 모든 사물들이 내 의식의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관념론자들도 분명히 멀리서는 작은 점으로 보일 이 지구에서 삶을 산 이들이다. 만일 저 감정이 우리에게 강력한 보편성을 띤다면 그 감정의 근원은 실재론자들과 관념론자들의 논쟁을 유발한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근원은 아주 작은 한 사물의 사소한 위치 변화에서 실재론이 보듯 그 운동에서 위치변화만을 보든, 관념론이 보듯 직접적인 인

78) Carl Sagan, *Pale Blue Dot: A Vision of the Human Future in Space*, New York: Random House, 1997, pp. xv-xvi

상과 그것이 새기는 관념들의 사후적인 결합을 보든, 거기에서 “우주의 심층적 변화”까지는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에서 기원할 것이다. 베르그손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절대적이며 불가분적 운동이 있으며 그런 운동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한정하고 고정한다. 여기서 우주 전체의 불가분적이며 절대적인 변화를 읽어낸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감정을 갖게 될까. 그 일단을 베르그손은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인간은 물론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 우주에서 지구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지치지 않고 반복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의 신체에 의해서조차 사람들이 그 신체에다 보통 부여하는, 그리고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를 물질적으로 단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했을 때 파스칼 자신이 만족했던, 최소한의 자리만을 점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의식이 적용된 물질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동연적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별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신체는 매 순간 변하고, 그것의 중심을 점유하고 최소한의 공간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일부분의 가벼운 이동만으로 가끔 극단적으로 변한다. 이 내적이고 중심적이고 상대적으로 불변적인 신체는 항상 현재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다. 단지 이 신체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신체에 의해서만 거대한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다. 행동이 고려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이해되기에, 사람들은 의식을 최소한의 신체속에 가두고, 거대한 신체를 무시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79)80)

79)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역),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아카넷, 2016), p.379.

80) Jankélévitch는 베르그손의 이 진술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정리한다. “자아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육체를 넘어선다. 공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편제된 소여를 갖고 있고, 이런 인간에게 공간은 한계가 아니기 때문이며, 시간의 측면에서 정신은 기억하고 그런 방식으로 항상 자신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Vladimir Jankélévitch. *Henri Bergson*. Paris: PUF. 1975, p.80~81.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난점이 남아있다.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 또한 시론이다. 시론인 만큼 많은 철학적 고전들이 야심을 품었던, 모든 아이디어들이 체계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사태들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모든 것의 이론이 그 한 권에 담긴 세계의 책으로 제시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그가 시론으로 시도하는 방법의 중요한 다음과 같은 모토 또한 만일 그의 시도가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면 무시될 수 없는 것이 되며 그를 시도로만 기억하게 되지 않을 힘을 상징한다.

“시간은 더 이상 부속물이 아니다(le temps n'est plus un accessoire)  
.”<sup>81)</sup>

---

81) 앙리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Oeuvres*, Paris, PUF, p.783.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 정순현, 「베르그손 철학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 비판」, 『철학』 제 77집, (2003.11), p.305.

## 참고문헌

### 1. 베르그손의 저작

*Matière et mémoire*. PUF. 1985(94° édition).

*L'évolution créatrice*. PUF. 2001(9° édition).

*L'énergie sprituealle*. PUF, 2009(Edition critique).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PUF.  
2011(Edition critique).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PUF. 2013(Edition  
critique).

박종원(역). 『물질과 기억』 . 아카넷, 2005.

황수영(역). 『창조적 진화』 . 아카넷, 2005.

최화(역).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 아카넷, 2001.

박종원(역).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 아카넷, 2016.

### 2. 2차 문헌

Čapek, Milič. *Bergson and Modern Physics*. Dordrecht: D.Reidel  
publishing company, 1972.

Gouhier, Henry. *Bergson dans L'histoire de la Pensée Occidental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89.

Guerlac, Suzanne. *Thinking in Time - An introduction to Henri  
Bergs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Jankélévich, Vladimir. *Henri Bergson*. Paris: PUF. 1975.

- Meyer, François. *Pour Connaitre Bergson*. Paris: Borda. 1985.
- Mullarkey, John. *Bergson and Philosophy*. Notre Dame: U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0.
- Pearson, Keith. *Philosophy and the Adventure of the Virtual*. New York: Routledge, 2002.
- Sagan, Carl. *Pale Blue Dot: A Vision of the Human Future in Space*. New York: Random House. 1997.
- Worms, Frédéric. *L'Âme et le corps - Bergson*. Paris: Hatier. 1992.
-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 반복을 넘어서는 창조적 사유 역량의 회복』 . 그린비, 2010.
- 정순현. 「베르그손 철학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 비판」, 『철학』 제77집 (2003.11)
- 정순현. 「‘유동적 개념’(le concept fluide)에 대하여 - 베르그손 철학에 있어 방법으로서의 직관의 한 예」,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0집 (2003.5)
- 황수영. 『베르그손 - 지속과 생명의 형이상학』 . 이룸, 2003.
-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 그린비. 2006.



## Abstract

# The Role of the concept of “image” and real movements on Bergson’s dualism which suggested in *Matter and Memory*

Lim, Jihwa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7<sup>th</sup> edition of introduction of *Matter and Memory*, Bergson evidently declares that his position is on dualism. The declaration implies that he intends to solve the classical problem of dualism. At the center of this attempt, there is a concept which he calls ‘image.’ Four chapters of matter and memory have a subtitle which all have the word ‘image’ and of which subject of sentence is ‘image’, so that notifies the core idea of this work is image. However, not only Bergson suggests ‘image’ to solve the problem of dualism and show that it is different from ‘thing’ of the realist and ‘idea’ of the idealist, he also tries to retranslate ‘mobility’ in order to relive incommensurability of two opposite substances, and for the trial, he wants to demonstrate a hidden extensity of Thought and a hidden non-extensity of Extension. Several established theories on mobility clearly distinguishes these two elements - homogeneous movements and sense qualities. Bergson’s intention is to prove that these two

elements comes from the same origin, the movements as the 'universal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how how Bergson retranslates mobility, how, by that, he builds a found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dualism, and how the core idea of this work, 'image', is suggested in that context. Therefore, I will restructure 'image', following Bergson's instruction in the Chapter one of *Matter and Memory*, which he by himself explicitly gives, and skipping his objections on realism and idealism, with which he dealt in limited context related to 'image.' Also, I will explicate an outline of his theory on mobility, and expand it to explain how it is related to 'image' and to Bergson's solution on the problem of dualism.

Keywords: Bergson, Matter and Memory, Dualism, Image, Real movements, Extensity, Extention, Body-image, Selection of image, Delimiting and fixation of image

Student number: 2012-22891